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에
동문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5대 신응남 회장 & 임원 일동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특집칼럼

Covid-19 사태로 본 미국의 강점과 약점

“미국, 백신개발도 최강국 면모”

특집칼럼(25면)

미 대선 후 경제정책 전망

특집기획(20,21면)

각지역 동창회장 설문조사



주중광(약대 60)

필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나 언어, 문화, 지리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살아야만 하는 정신적인 큰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 대부분은 미국의 장래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오랜동안 미국의 장래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여러가지 자료들을 관심있게 읽고 수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미주총동창회의에서 Key-note Speaker로 초청되었을 때 미국의 강

점에 대해 요약한 것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Current US Leading Areas (US Strength)

1. 대학과 학문의 번영으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
 2. 이민정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인구증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조건임).
 3. US Energy Revolution으로 자원문제가 해소 되었다.
 4.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패권을 유지한다.
 5. Progressive culture로 문화의 발전 및 전파 이룬다.
 6. 미국은 영토 확장의 야심이 없고 다른 국가들과 공존하며 번영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며 세계 자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리드할 원동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Rome(753BC-

1453AD)과 같이 미국은 최소한 2천년은 더 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와 전세계가 SARS-COV-2(COVID-19) 때문에 의료대란(health crisis)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 사실이며, 특히 미국은 COVID-19 pandemic으로 수렁에서 아직까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때는 미국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의 승무원 1,200명이 COVID-19의 감염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모항으로 복귀하고 함장(Capt. Brett E. Crozier)까지 파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으며, 그 틈을 타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벌여졌던 것을 국제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기억하고 우려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는 거기에 관계되었던 항공모함은 원대복귀해서 정상적인 작전을 남중국해에서 개시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독립을 원하는 대만에 대해 선전포고까지 한 중공이 동중국해에서 계속 위협하고 있으니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라 염려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COVID-19 pandemic으로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 문화, 교육, 관광, air transportation, sports산업이 마비되었거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 세기에 일어날수 있는가? 이런 대참사가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던지 또는 accident로 일어난 것인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의료 대참사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다.

중세기(12-14세기)에도 흑사병으로 Europe 인구의 1/3 (25 million)이 소멸되었으며 19세기 초(1918)에도 Spanish Flu가 전세계를 강타하여 5천만명이 사망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않는가.

1980년대 초에 들어와서 또 한번 바이러스로 인해 AIDS health crisis가 일어나서, 2020년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32.7 million 사망하고 38 million 이 현재 HIV 보균자로 살고있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 HIV pandemic을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

<4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윤기항(법대 65)

/ 미 대선 후 경제정책 전망 /

조 바이든의 오디세이

<President-elect>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선거도 없었고 또 혼돈과 대립으로 점철된 선거도 없었다. 이번 선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45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4년간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예측 불허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여기에 지난 1년간은 코로나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멈춰선 시간이기도 했다. 인류는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만큼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이전투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4월 30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23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 후 패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전통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미국이 창조해낸 대통령제 정치체제는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민주정치체제로 평가받아왔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인 미국이 이번 선거로 인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입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한때 한국의 민주주의를 두고 '한국의 폐허 속에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런던타임스, 1951)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우리로서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가 230여년 이상 유지되어 왔고 많은 나라들에게 민주주의의 전범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민주주의체제와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칼은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제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꽃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선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된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과시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의 정치로 독단주의로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운영은 원칙과 철학이 결여된 채 그의 개인기에 크게 의존했다.

특히 그의 편가르기 정치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제도도 다시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이다. 이 땅에 상식과 양식만 회복되어 미국의 정치가 저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증대와 경기부양에 더 적극적으로, 공화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를, 공화당 정부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며, 민주당 정부는 재정 지출의 확대에, 공화당 정부는 세금 감면에 방점을 둔다.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의 차이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민주당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공화당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정책의 큰 틀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코로나팬데믹으로 무너

얌으로 코로나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돈풀기 정책의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팬데믹의 위기는 종식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백신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상반기이면 코로나백신이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접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팬데믹이 종식될 때 사람들의 '불퐁이 소비 심리가 분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복 소비에 그동안 풀린 돈까지 겹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후폭풍이다.

예일대학의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가 제안한 정치적 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은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 이유는 실업률의 하락과 소득의 증가가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풀면 그 후유증으로 선거 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 정치인들은 일단 당선만 되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돈을 줄이는 정책(긴축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업은 다시 늘고 소득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몰고온 특수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돈이 엄청 많이 풀린 것만은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경제적 도전은 그동안 풀린 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4년 혹은 8년에 걸쳐 떠나게 될 새로운 여정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오디세이(오디세이)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 이타카로 긴 여행을 떠난 오디세이아의 여정에서 갈림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고 중앙은행인 연준은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쓰는 혼합정책(policy mix)이 묘약이 될 수 있다. 이는 종종 환자에게는 몇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그러나 종종 환자에게 투여된 고단위 치료약은 환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도 이와 비슷하다. 고단위 경제처방의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미국정부와 연준이 고용 증대와 경제 회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으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돈풀기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5면에 계속>

/ 특별기고 /

한국근대화의 역사적 의미

- 세계사적 의미 재정립 필요 -



하용출(외교 67)

지난 해 중국 후단 대학의 초청으로 상하이에 수개월 체류한 적이 있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예상한 것처럼 높지 않다는 점이었다. 한 실례로 중국의 수 많은 대학 중 한국 역사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단 두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충격적 경험은 과연 한국은 중국에 어떤 존재이며 나아가 한국은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이 중국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는 한국의 근대화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은 1945 이후 탈식민지 세계 질서에서 아주 독특한 위상과 의미가 있는 사례로 서방에서 영국이 갖는 그것과 비유될 수 있다. 한국은 1945년 세계에서 최초로 경제적 성과와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행과 겹고있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1945년 이래 탈식민지 국가들은 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무수히 많다. 이 중 성공적인 경제적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는 한국, 대만 등 손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서구에서 최초로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이룬 영국과 비견할 만하다.

이런 한국의 경험이 갖는 의미는 아시아는 물론 식민지를 겪은 세계 각국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할 때 한국의 역사적 노정은 아주 독특하고 의미가 있다. 아시아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세가지 모델을 들자면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일 것이다.(중국도 그 과정에서 아주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다). 일본은 너무 일본적인 근대화 방식을 추구한 결과 스스로 정치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여 민주주의가 외부에 의해 강요된 경우다. 싱가포르는 전통적 종교질서를 바탕으로 한 관료 통제 사회다. 이 사이에서 한국의 사례는 서구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경제 모델이 가져온 비민주적 유산 사이에서 끊임 없는 조화를 취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경험과 노력이 갖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단계적인 혼란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 보다 경제 발전의 성공이 한국인이나 해외에서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근대화 경험이 제대로 파악된다면 이것이 갖는 대외적 의미는 심각한 것이다. 서방에 대해서는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적 전략적 대상에서 나아가 앞으로 중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심각한 함의를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오랜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대중관계에서 근본적인 탈출을 의미한다. 50

여년의 냉전 역사가 가져온 한국 국가정체성의 탈 아시아화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런 점을 크게 부각시켜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이 중국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 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한국의 변화를 중국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에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 한국관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미국에 대해서는 왜 한국이 미국과 더 친화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기계적인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각각 주문처럼 외쳐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역

듯하다. 원래 경제 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만 민주화는 지난하게 전개되어 한 세대로 부족하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을 알게 된다. 영국의 경우 여성투표권을 부여하는 데만 명에 혁명 후 200여년이 걸렸다. 프랑스의 민주화 역사를 보면 혁명 이후 수십 년을 왕정으로 보내야 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과 같이 확연한 발전단계의 획을 긋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르고 쓰러질지 반복한 시시프의 바위 떠밀기와 같은 끈임없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채택된 각종 민주제도도 보통선

한국, 서구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경제성장의 조화

한국 근대화 경험의 세계사적 의미 다시 짚어보아

민주주의 안정을 위해 한국 정당구조 재창립 요구

사적인 한국경험의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정체성의 정리는 국내적으로도 혼란에 빠진 대중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단순히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순위를 넘어 한국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진영에 귀속되어 정치적으로는 당시 한국사정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정 반대로 경제개발은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고속성장을 위해 각종 불법과 비법이 묵인되었고 국가 행정력이 모든 분야를 통제했다. 한국의 아 이러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이상에 대해서는 전 교육과정을 통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으면서도 생존을 위한 일상에서는 정 반대로 비민주주의적 관행 경험을 한대 있다. 지난 30년 민주화 과정도 보수 진보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일상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세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이런 점은 한국민주주의의 안정화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 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으로 민주화가 경제처럼 빨리 정착하지 않은 데 대한 초조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 보장의 예에서 보듯 이렇다할 투쟁없이 헌법에 서 보장된 결과 민주주의 토착화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이제 경제개발의 비민주성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간단한 길에 있을 뿐이다). 일본은 너무 일본적인 근대화 방식을 추구한 결과 스스로 정치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여 민주주의가 외부에 의해 강요된 경우다. 싱가포르는 전통적 종교질서를 바탕으로 한 관료 통제 사회다. 이 사이에서 한국의 사례는 서구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경제 모델이 가져온 비민주적 유산 사이에서 끊임 없는 조화를 취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경험과 노력이 갖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단계적인 혼란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 보다 경제 발전의 성공이 한국인이나 해외에서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드문 일이다. 한국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창조적 혼돈의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예 개편을 통해 복잡하게 변화한 한국사회와 연계되는 정당구조의 재창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도입된 서구제도와 한국관행이 조화된 새로운 경제체제와 대외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 한국사회 경제를 감안할 때 대외적 충격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분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민주주의가 착근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혼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 볼 필요는 없다. 음악, 영화 등 한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근대화 경험이 세계사적으로 정리되어 한국의 체제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사회가 당연한 혼란과 갈등의 의미를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장기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방향 감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한국내의 불안감을 덜고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정치인들의 영합게임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생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한국정치는 이러한 공생의 국민적 정서와 승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해 왔고 국민들의 정치 소외를 조장해 왔다. 마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변화된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흡사하다. 그렇다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록 그 역사가 일관한 것에 비해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지난 30여년 동안 커다란 도전과 혼란이 없이 평화적 권력교체를 이루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수모를 겪었지만 민주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그룹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민주주의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검찰, 경찰, 교육, 언론 등의 탈정치화가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수 천억 대의 대통령 부패 규모가 수십억대 수준으로 줄었고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도 이전 과 달리 감소 추세에 있다.또한 외환위기와 세계화를 통해 산업화의 후유증인 지역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갑질현상에 대한 자생적인 비판, 김영란 법의 실시, 미투 운동, 주 52시간제도의 채택 등으로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권위 관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으면서새로운 인간형과 인간관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드문 일이다. 한국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창조적 혼돈의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예 개편을 통해 복잡하게 변화한 한국사회와 연계되는 정당구조의 재창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도입된 서구제도와 한국관행이 조화된 새로운 경제체제와 대외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 한국사회 경제를 감안할 때 대외적 충격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분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민주주의가 착근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혼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 볼 필요는 없다. 음악, 영화 등 한류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근대화 경험이 세계사적으로 정리되어 한국의 체제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사회가 당연한 혼란과 갈등의 의미를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장기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방향 감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한국내의 불안감을 덜고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

<Korea Foundation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1면서 계속>
중세기 유행했던 흑사병은 들쥐의 flea벼균(bacteria-Yersinia pestis)을 전파했는데 현대같이 과학(특히 epidemiology)이 발달되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감염원인과 매개체를 인지하지 못해 유럽전체에 창궐한 사례이고, 1918 Spanish flu는 병원균 (H1N1-influenza A virus)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처할 백신과 therapeutics가 없어서 창궐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창궐한 COVID-19 (SARS-CoV-2)은 왜 전파를 제대로 방지 못하고 또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부진하여 COVID pandemic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가. 또 어떤 국가는 pandemic에 대처를 잘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초기에 해결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 않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를 생각 해 볼수가 있다. Pandemic을 가져온 각 병원균들의 특성이 각각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 US weakness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전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COVID-19 pandemic에 대처가 지지부진한 것 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pandemic 이 2020년1월 이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중국당국에 의하면 현재 (11월) 일부지역을 제외 하고는 pandemic이 어느정도 통제가 된 듯하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중국 우한에서 COVID-19이 한창 창궐 할 때는 감염된 가족의 출입을 막기위해 대문을 밖에서 판자로 막고 못질까지 한 장면이 internet에 떠돌기도 한 것을 독자들도 보았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전체주의/공산주의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가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뉴스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북한이 COVID-19 이 해결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매우 중요시한다. 대통령이 언제 corona 양성 판단을 받았는지 Walter Reed육군병원 에 몇날 몇시에 입원하였는지 치료로 무슨 약을 썼는지 체온이 몇도이고 산소공급 마스크를 몇번 썼는지 등등 모든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COVID-19 감염자수도 실시간으로 TV에 보도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있다.

11 월말 현재 미국, all Europe, India, Brazil 등 에서는 2nd /3rd 감염 사태로 방역 당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두를 인구가 많은 자유 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국민들의 일거일동을 강력하게 통치 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앞으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각국 보권당국은 corona가 더 기세를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corona virus는 찬 기운에 생존력이 강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 지므로 사람 대 사람 접촉이 가까워 질수 밖에 없어서 바이러스 전파가 더욱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겨울에 오는 flu season과 겹치면 perfect storm이

되어 더 큰 pandemic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많은 학자들 도 있지만 corona virus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flu도 예방 할 수 있다는 positive 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How to prevent COVID-19

그러므로 현 사태에서는 예방이 최상의 옵션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 이지만 실제로 잘 실행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것 은 자신을 위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마스크를 착용해도 side로 공기가 새나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사용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집에 도착해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쪽과 바깥쪽에 70% alcohol 을 spray해서 보관 하는 걸이 좋다 (spray 하고 금방 다시 쓰는 것은 피할것 - 어떤 제품에는 인체에 해로운 외상 에탄 슐 수 있는 isopropyl alcohol 70 % 가 주성분 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또 한가지 필수적인 행동은 손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오기전에 비누로 손세척을 하는것은 물론

미국, 백신개발엔 뛰어난 능력… 팬데믹 통제엔 한계
감염연구와 철저한 정부대책, 국가간 소통 강화되어야

이고 나올때도 문고리를 맨손으로 열지 말고 물기를 닦았든 paper towel 로 문을 여는 것을 일상화 해야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모든 infectious diseases를 대부분 막을수가 있다. Papertowel이 없다면 나오는 즉시 70% alcohol로 손을 문질러야 한다. 필자는 한 거를 더 나아가서 집어서 외출 때는 간편한 rubber gloove (바닥은 rubber 이고 등은 cloth) 을 낀다. 상점이나 grocery 에서 shopping 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다. 손에서 입, 눈, 코로 accident 하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집에 도착하면 alcohol를 뿌리고 장갑을 세우고 한다. Corona virus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pre-coronavirus 시대에서 하던 몇가지 행동을 자제해야 함은 우리는 대부분 신문잡지 그리고 상식의 범주내 에서 알고 있다. High risk 행동의 예를 들면 교회에반 참석, Buffet 음식점에서 식사하기, hair salon & movie theater가기, 비행기타고 여행가기, 큰 sports 경기참석하기(golf 와 tennis는 low risk에 속함), seminar 참석, 학교 class 참석 등등. 이런 행동은 high risk category에 속하므로 가능한 한 자제하거나 피해야 할 행동인 것은 우리모두 알고 있다. Good News는 위에서 언급한 prevention practice들과 행동에 신경을 쓴다면 거의 100 %가까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COVID-19 백신 개발현황

다시 필자의 주된 subject 인 미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계속 discussion 해보면 미국은 세계각지의terrorist들을 염두에 두고 지난 수십년 동안 bioterrorism(bacteria, viruses, insects, fungi, or toxin을 사용한대로)에 대해 연방정부 (주로 Army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왔다. 필자도 90s/20s대에 NIH 에서 연구

자금을 받아 bioterrorism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주로 therapeutics (antiviral agents)에 연구를 했지만 미국의 여러 연구실에서 백신연구도 큰 몫을 했다. Influenza도 bioterrorism agent에 포함이 되지만 avian flu(조류독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priority가 그리 높지않은 agent로 취급이 된다. Influenza는 현재는 백신 개발 이 가능하며 또 매년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flu는 매년 창궐하므로 백신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점이다 (매년 effective한 백신을 준비 할 수는 없지만) COVID-19은 인류가 처음 당면하는 병원체이므로 과학이 발전한 21세기라도 백신 제조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 한 것 이 사실이다. 다행이 미국은 biomedical research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더욱이 정부에서 백신 개발에 많은 비용을 promising한 biotech과 제약회사에 재정적인 보조를 하였으므로 조만간 safe & effective한 백신이 12월 중으로 보급이 되리라 믿는다. 초기에는 물량이 적으므로 백신 distribution plan 을 세워 vaccination 할 계획이며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에서 recommend

미국, 백신개발엔 뛰어난 능력… 팬데믹 통제엔 한계
감염연구와 철저한 정부대책, 국가간 소통 강화되어야

한 plan에는:

Phase 1 priority : High-risk health workers, first responders, people with underlying conditions, older adults living in congregate (nursing home, etc),

Phase 2 priority : K-12 teachers & school staffs, critical workers with high risk settings, all ages with risk with underlying diseases, people in homeless shelters,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in prisons &detention center, older adults not included in in Phase 1.

Phase 3 priority : children, young adults, industrial workers who are important for functioning society,

Phase 4 priorit y: US residents who are not included in Phase 1, 2,&3.

현재 100개 이상의 COVID-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이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백신 을 누가 개발 하고 있고 언제쯤 나올 것 지를 알아보면, COVID-19에 대한 백신은 아래와 같이 4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 Genetic vaccine (mRNA): Moderna (US-A)-phase 3, BioNTech/Pfizer (USA)-phase 3, etc.
- Viral vector vaccine (Adenovirus vector): Johnson & Johnson (USA)-phase 3, Astra Zeneca (England/Swiss) -phase 2/3, etc.
- Protein-based vaccine(protein): Novavax (USA)-phase 3, Abhui Zhifei Longcom (China)-phase 2.etc.
- Inactivated or attenuated vaccine(quick &dirty method): Sinopharm(China)-phase 3, Bharat Biotech (Indian)-phase 3.etc.

그 중에서 3회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mRNA technology 를 이용한 Moderna (USA) 와 Pfizer (USA) 가 phase3를 11월 중으로 3만명에 대한 임상실험을 종료하고 safety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 FDA 허가를 신

320호 | 2020년 12월 호

청할 예정이며 Johnson & Johnson 회사도 adenovirus vector를 기본 으로 한 viral vector 백신을 내년초에 FDA 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Johnson & Johnson의 백신은 Moderna와 Pfizer의 백신 (우리 몸 안에서충분한 바이러스 항체를 생성하려면 1개월 간격으로백신을 2번 접종함)과 달리1회 접종만 하면 된다고 보도 되었다. 중국과 Russia가 백신 (inactivated or attenuated) 개발을 완성하고 인체접종을 시작하였지만 phase 2까지만 했다고 하니 (FDA 허가를 받으려면 몇 만명에 대해 phase 3 study가 필수 임) safety & efficacy가 입증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Conclusion

위에서 기술한 6가지 미국의 강점으로 나열한 바와 같이 미국은 biomedical research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leadership 을 발휘하고 있고 FDA 허가와 시판도 선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점이 미국 과학의 힘과 재정적 뒷받침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pandemic을 통제하고 해결 하는데 다른 유럽국가들이나 India, Brasil과 같은 대형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이 큰 약점의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pandemic을 더욱 악화시킨 중요 이유는 Corona virus 전파력이 유례 없이 강하며, 사람 대 사람의 전염이 가능하며, 또한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40-50%의 젊은 감염자들은 전혀 증상이 없다는 점도 전파에 큰 몫을 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번 pandemic은 대부분 senior 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Corona virus에 대한 면역반응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러닉 하게도 부와 막강한 군사력, 발전된 과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마저 미치한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는 emerging microorganisms (또는 bioterrorism)에 대해 더 많은 기초연구와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국가간에 더 많은 협조와 소통(중국은 국제적인 소통에 등한시 했거나 초기단계에 은폐하였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결론 지을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전공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현재 Gilead Science사의 remdesivir 이외에는 아직 지면에 발표된 major breakthrough가 없지만 COVID-19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항바이러스제가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므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진전이 있으면 이 지면을 통해서 추후 보고 하기로 하겠다).

*현재(11월 말) 모더나와 파이자 제약회사에서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해 약 95% 면역효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주중광 교수(미주동창회 고문)**

1964년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주 동문은 조지아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신약개발에 헌신, 세계적인 약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주중광·허지영 동문 부부는 서울대에 총 25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320호 | 2020년 12월 호

정치는쟁에서 보수주의자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통상 우파로, 리버럴이나 사회주의자는 좌파로 지칭된다. 한국에서는 전자를 보수우파, 후자를 진보좌파 또는 개혁진보 계층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이는 후자가, 흔히 그렇듯이, 전자를 사회진보라는 ‘좋은 의도’에 반하는 나쁜 정치성향으로 비판하려는 속내를 드러낸다고 여겨진다.

인간사회의 여건이 이성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철학적 진보주의 (progressivism) 사상의 기원은 17-18세기의 계몽주의에서 태동했지만, 이를 정치사회적 개혁체제로서 적극 추진했던 정치세력은 서구 보수주의자들, 특히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었고, 그것도 급진적 사회구조 개혁이 아닌 제한적, 점진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반면에, 급진적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했던 사회주의 정책이나 공산주의 혁명은 예외없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남긴 채 실패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 = 진보로 여기는 선견적 때문에, 일부 보수주의자들마저 리버럴좌파의 이념적 공세에 수세적 태도를 드러내는게 사실이다.

정치운동으로서 진보주의는 19세기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서 테디 루즈벨트의 공공복리의 중대가 개인자유의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믿은 공리주의자이자, 정치권력의 신봉자였다. 그의 사상은 공권력, 특히 행정명령과 사법권, 의회권력을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우

<2면서 계속>
오디세우스는 그의 병사들의 귀에 밀랍을 통합하도록 해서 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그는 그 자신을 뜻대에 공공 동여매게 함으로써 사이렌에 다가갈 수 없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피해서 무사히 고향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킨랜드(Finn Kydland)와 프레스코트(Edward Prescott)는 오디세우스의 신화를 인용해서 유명한 통화정책의 준칙을 제안했다. 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서로 대립된 두 가지 경제이론이 있었다. 하나는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실업이 늘어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케인스가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론으로서 케인즈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 의해서



장대홍(공대 65)

드로 윌슨 대통령이었다.

이 시기부터 민간분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연방정부의 규모도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리버럴리즘은, 원래의 자유주의와 정반대

역사적으로 급진적 사회개조운동 잇달아 실패
진보계층, 주도권 쟁탈 앞서 역사적 성찰 갖춰야

로, 반시장적, 평등지향적, 정부개입주의적 이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윌슨은 시장과 자생적 질서를 신뢰하지 않았고, 공공복리의 중대가 개인자유의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믿은 공리주의자이자, 정치권력의 신봉자였다. 그의 사상은 공권력, 특히 행정명령과 사법권, 의회권력을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우

확립된 고전학파경제학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몰흐르듯 내버려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면 경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경제가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통화량을 한 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맞춰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의 경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킨랜드와 프레스코트의 오디세우스 비유는 이러한 준칙을 뒷받침한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몰흐르듯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까? 그에 답은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

/ 오피니언 /

진보정치의 허실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후 뉴딜과 위대한 사회와 같은 미국적 리버럴리즘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다시말하면, 윌슨 진보주의나 그 후예인 리버럴리즘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와 개입을 통해 사회를 자신들의 이념의 틀에 맞게 재

대선과정과 정치적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중인 미국에서 리버럴좌파들이 스스로 진보주의(자)라는 용어를 새삼스럽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 학계, 언론계, 민주당원들도 이에 가세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지식계층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 또는 리버럴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그들의 속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주도권 쟁탈 운동을 하기에 앞서, 왜 급진적 사회개조운동이 늘 실패했고, 문명의 발전이 늘 정부의 통제가 약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참여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수우파가 사회발전의 주역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성찰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득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윌슨 진보주의 사상은 이후 무슬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지 않다. 그것들은 보수우파 사상과는 거리가 먼, 국가

다. 경제가 위기경제나 전시경제 상황에 있을 때에는 경제의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공황 때에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그랬으며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때에도 정부는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평시경제 상황에 있으면 경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기능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경제의 자정능력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과 비슷하다.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면 수술이나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지간한 병원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오디세우스의 비유는 때로는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적극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적 예화라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때와 관여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의 전통에 따라 코로나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미국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가는 정책, 관여의 유혹과 절제의 미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오디세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밀랍으로 귀를 막고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정이 될 때 성공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흔히 그들을 극우 전체주의로 보는 오해는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공유한 경쟁자였지만 계급투쟁 혁명에 치중했던,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었기에 붙여진 낙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가 이어지면서, 정치논쟁에서 진보 또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한동안 잘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보다 덜 원설적인 표현인 리버럴(리즘) 또는 좌파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을거로 짐작된다. 그러나 진보주의나 리버럴(리즘)은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격심한 좌우진영의 대립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대선과정과 정치적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중인 미국에서 리버럴좌파들이 스스로 진보주의(자)라는 용어를 새삼스럽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 학계, 언론계, 민주당원들도 이에 가세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지식계층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 또는 리버럴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그들의 속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주도권 쟁탈 운동을 하기에 앞서, 왜 급진적 사회개조운동이 늘 실패했고, 문명의 발전이 늘 정부의 통제가 약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참여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수우파가 사회발전의 주역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성찰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득해야할 의무가 있다.

Merry X - Mas &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동문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40년간 영한시를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전파”

동창회, 스탠리 발칸에 감사패 전달

CCC poetry 50주년 기념 행사 및 시낭송회

지난 10월 18일 롱아일랜드 벨모어에 소재하는 Umberto restaurant에서 CCC poetry 50주년 기념 행사 및 시낭송회가 있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미주동창회 회보를 통해 현대 미국시인들의 시를 추천하고 소개해오던 CCC Poetry 대표 스탠리 발칸 시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는 지난 40년동안 꾸준히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한영시집을 출판해 영어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소개해왔다. 그날 축하행사 중에 전달식을 가졌다.

CCC Poetry 멤버이며 시인으로 30여년 동안 영시 활동해온 곽상희, 이희만 동문시인은 4시간에 걸친 행사 중에,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국시인들과 시낭송에 참여하였다. 곽상희 시인은 <코로나 사계2>와 이희만 시인은 <코로나 블루>를 한국어, 영어로 낭송했다.

그날 CCC는 두 동문 시인에게 지난 30여년간의 영시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예술훈장

(Literary Art Medal)이 수여되었다. 그로 인해 더욱 뜻깊은 날이 되기도 했다. 그 날 한국 시인 편으로는 민족시인 조지훈 선생의 시 '낙화'를 맨하탄에 거주하는 시인의 장남 조광렬 수필가가 한국어/영어로 낭송하여 미국 시인들에게 널리 소개되었다. 시 '낙화'는 작년에 CCC가 출판한 조지훈 시인의 영한시집<Shedding of the petals>의 제목이기도 하다.

CCCpoetry는 지난 반세기동안 400여권의 bilingual 영문과 타인어 시집 출판을 하였고, 수 백번의 시 낭송회를 통해 다른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

미주동창회가 대외적활동의 일환으로 감사패를 수여하여, 그 노고를 다소 치하하는 것은, 동창회 활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미가 될 뿐 아니라, 한인족이 뿌리깊은 문화 민족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일조하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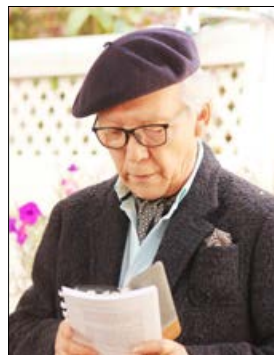
신용남 동창회장이 발칸 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곽상희 시인



이희만 시인



조광렬 수필가

시애틀 워싱턴 동창회 SNU 포럼

윤상호 박사 ‘딥러닝’ 강의

<Deep Learning>

서울대 시애틀 워싱턴 동창회에서 개최하는 SNU Forum 11월 세미나가 지난 14일 (토)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Microsoft에서 Senior Hardware Engineer로 근무하고 있는 Dr. Stephen Youn(윤상호 박사)가 인공지능 기술중에서 Deep Learning을 주제로 강의했다.

일반인에게는 2016년에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 9단 프로그램과 Google Deep Mind의 AlphaGo와의 세계적인 대결로 인해 ‘딥러닝’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Deep Learning용어를 굳이 번역하자면 ‘심층학습’ 정도가 된다. Google은 높은 수준의 능력과 직

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AlphaGo’라는 보드게임을 배우는, 자체적인 신경망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AlphaGo’의 딥러닝 모델은 표준 머신러닝 모델과는 달리 특정동작을 수행해야 할 시점을 알려주지 않고도, 전문적인 Go(바둑) 플레이어와 대결하여 이전의 인공지능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수준에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바둑 기사들을 상대로 모두 이겼을 때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어 2018년에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의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렇게하여 기계가 게임의 복잡한 기

술과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부분 (하위개념)에 속한다. 즉,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에 따라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지만, 딥러닝(Deep Learning)은 알고리즘을 여러계층으로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배우고 지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들면서 인간과 매우 유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산업체로부터 계속 각광받아왔으며 이미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해 개론적인 설명을 했다. 인공지능은 상당히 큰 범주에 속하므로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 주로 근래에 큰 영향을 끼친 딥러닝 기술이 이번 세미나의 주제였다. 먼저 딥러닝이 무엇인지를 두가지 대표적인 모델 (즉 컴퓨터 비전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혁신을 가져온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과 최근 몇년간 자연언어처리에 큰 혁신을 가져온 transformer)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실제 검색 엔진, 핸드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어떠한 기술적인 과제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현대 기술시대를 사는 우리 일반인 비전문가들을 위한 좋은 입문 강의가 되었다.

<시애틀 워싱턴 동창회 제공>



/ 부고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창무 (음대 53)

김창무 동문 (음대 53)이 지난 10월 19일, 92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지난 11월 11일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y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장례식이 있었다.

고 김창무 동문은 LA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초빙받아 도미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3년 동안 남가주 음대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초기 남가주 음대동창회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고, 남가주 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음악계에 업적을 남겼다. 또한 동양인 최초로 LA에서 악기점 (CM 음악사)을 20여년 간 운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애인(음대 53)과 1남1녀를 슬하에 두셨다.

골드이사



박창규 (약대 59)

박창규 동문은 서울고를 거쳐 1959년 서울대 약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71년 아내와 함께 LA로 이민 와 이듬해 USC 약대에 편입했다. 1974년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듬해 LA한인타운 첫 한인운영 약국인 '올림피아 약국'을 올림픽 길에 열었다. 박 동문은 약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982년 미국

내 순수 한인 토착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한인은행인 한미은행 창립 이사로 은행 설립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초대 행장을 지낸 정원훈씨를 비롯 한인 사업가 9명이 주축이 돼 설립된 한미은행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 미주 대표 한인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그는 한미은행 성장에 정점을 이뤘던 2002년 이사장직을 맡았다. 박 동문은 뉴욕에서 열린 세계국약경연

대회에 출전해 시니어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남가주 한인사회 난 애호가들 사이에선 유명한 난 전문가로 2001년 재미한인난협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그는 2010년 착고한 고원 시인의 뜻을 기려 '고원기념 사업회'를 설립해 고원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비건립과 문학의 밤 개최 등 미주 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왔다.



최수용 (상대 56)

최수용 동문은 55년 충주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NYU Business School(Stem)을 나와 60년 유한양행에서 근무했다. 65년 서광산업 주식회사 무역부장을 지냈으며 69년부터 72년까지 부산제복 주식회사 뉴욕 지점장을 역임했다.

그는 브로드웨이 한인상가의 주역들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대부로서, 리버티은행 이사장과 스토니브룩대 한국학과 후원회장을 역임하는 등 커뮤니티 참여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때 도미니카에 대형 봉제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80년대 초 적기에 부동산에 손을 댄 것이 주요하여 그의 후반기 인생을 넉넉하게 장식해 주고 있다. 그는 96년 서울대학교 뉴욕지부 회장을 지냈으며 89년부터 94년까지 쿠오모 주지사 아시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8 Liberty Bank 이사장으로 재직후 현재는 Kione Enterprises Inc & Subong Inc의 CEO이다. 한미 장학재단을 통해 해마다 경영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3년 미주한인 인물 101인 선정(미주한인 100년사 수록 명단), 2001년 서울대총동창회 공로상 2018년 서울대 총동창회 사회기여상을 수상했다.



강 에드워드 (사대 60)

에드워드 강 동문(사대 60년)은 1968년 미국으로 유학, 오글라호마 대학원에서 석사를 끝내고 석유회사 Texaco 본사에서 유라시아와 호주 지역 담당 책임자를 거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Manhattan에서 공인회계사무소를 개업, 운영하다가, 지난2011년에 은퇴했다. 그간 뉴욕 한인회 이사등 여러 한인사회단체의 이사등으로 한국 교포 사회활동에 봉사하였고, 서울대 뉴욕 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회장시에는 서울 동창회 건물기금을 모아, 서울에 송금하여 참여한 120여명의 뉴욕동문들의 이름을 동창회관건물 2층 Veritas Hall 동판에 남기는 일을 했다. 현재는 재외한인연구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에드워드&인애 강 재단을 설립, 매년 10-13명의 대학, 대학원 학생들에게 일인당 \$5,000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 밖에도 Juilliard Music School과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등 비영리단체에도 매년 장학금과 보조금을 수여하여, 현재로 \$350,000에 달한다. 허락되는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를 돕는다는 것과, 교육으로 능력을 쌓은 훌륭한 인재들은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더 밝고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영태 (문리 67)

최영태(문리 67)동문은 서울 문과대 수학과를 수학하고 73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에서 택시운전 기사로 첫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퀸즈 칼리지에서 야간 강의를 들으며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키워 갔다. 이후 전공과목을 살릴 수 있는 공인 세무사란 직업을 생각하게 됐고 준비 끝에 1977년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미동부지역 한인 공인 세무사 1호가 됐다. 이듬해인 1978년 맨하탄 32가 강서회관 건물내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한 해부터 브로드웨이 한인도매상가가 형성되기 시작, 83년까지 한인 업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그 덕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며 개업 후 단기간에 사업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다. 최 동문은 99년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집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유튜브 채널 "일공 최영태"에서 "모든 종교는 허구 사기인가"를 운영, 110,000명 이상이 시청했다. "일공 최영태"를 치면 시청할 수 있다. 또 유튜브 채널 "코메리칸 TV"에서 비디오 24개 완성. "코메리칸 TV"를 치면 시청할 수 있다.



이재랑 (상대 61)

이재랑(상대61)동문은 남성리류 수입 도매상인 '제이드 이스턴 트레이딩' 대표로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0회 상공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동문은 의류섬유 관련 산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표 기업인이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70년 가발주류 수출업체 지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왔으며 75년 제이드 이스턴 트레이딩이라는 남성리류 수입도매 회사를 설립, 현재 연 매출이 4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동문은 남자 셔츠를 중심으로한 의류 제품을 한국과 동남아에서 제조, 미국으로 들여와 윌타트 등 미국 전역의 상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대 뉴욕동창회 이사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관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욱 기금 관리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95명의 종신이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문들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 큰 영향력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린 삶의 선배로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10월부터 미주동창회 사무실이 소재하는 뉴욕을 중심으로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빛나는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동창회 지역회장단 온라인 회의 개최

‘차차기 회장 추천’ ‘브레인 네트워크 3월 개최’ 등 논의

동·서부 넘어 하와이까지 25여명 참석 열띤 회의



지난 11월20일 미주동창회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Zoom 미팅이 열렸다. 각지역 회장단이 '차차기 미주동창회장 후보추천' 등 주요 안건을 놓고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평의원회의때 한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행사의 순서의 하나로 진행되었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 회의는 앞으로 미주동창회의 각지역들이 온라인으로도 주요 안건을 처리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경험이되었다. 이번 회의는 약 25명의 지역회장및 임원들이 참여했는데, 동/서부는 물론 하와이까지 상당한 시차가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의 긍정적 실험이 되었다.

동부시간으로 5시에 연영재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용남 미주총회장의 인사말씀을 서두로 온라인 지역회장단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의 첫 안건은 차차기 미주동창회장 후보추천이었다. 윤상래 위원장은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추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천이 없는 상황이다"며 "11월까지 좀더 회장추천을 위해 기다려 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장윤일 회장은 "이용락 6대회장이 인선위원이 되면서 17대 회장 후보를 내기위해 1차로 내분을 선정해서 교섭을 했지만 다들 고사했고, 2차로 또 내분을 선정해서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총 12명의 후보를 발굴했지만 최종 설득에 실패했다"며 "미주총동창회장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수 밖에 없는 자리"라며 시카고에서는 더이상 후보가 없는것으로 결정이 났다. 다른지역에서 후보를 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공식적으로 미네소타에서 두분의 추천이 들어온 상황으로 이에 송세진 미네소타 회장은 "본인이 그중 한분을 추천하며 그분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으로, 할수 있다면 그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번째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다. 신용남 총동창회장은 "신문지상에 보셨다시피 이번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104명이 총금 이사가 되었다. 15대 임기중 10만달러의 지원금이 확보가 된 상황이다. 현재 52만달러 정도 되는 기금이 모아진 상황으로 임기가 끝날때까지 60만달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며 "각지부에서 가능성 있는 동문을 지부회장들께서 권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이어 3번째 '중신이사 가입 권고'의 안건에 연영재 사무총장은 "현재 남가주 40명, 뉴욕 14명, 뉴잉글랜드 11명

등의 중신이사가 등록되었으며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들의 가입이 많은 상황이다"며 각지역 회장단이 많은 활약을 해주길 부탁했다. 네번째 안건인 "Brain Network 활동계획"에서는 이강원 공동위원장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서울대모교에서 특별한 브레인네트워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3월에 있을 브레인네트워크에서 하용출 공동위원장이 Covid-19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다. 하위원장이 경제와 정치문제에 관련된 연사를 모실 예정이고 내가 백신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혹시 오늘 지부장님들께서 관련된 인사가 있으면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워싱턴 DC의 박상근 회장이 지부 포럼에서 활약중인 대형 병원시스템에 디렉터로 있는 의대 동문을 추천하기도 했다. 미주동창회는 백신 상황이 더 좋아질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인사들과 더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진 '동창회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한 발언에서 지역동창회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하와이의 성낙길 회장은 "지역적인 제약으로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다행인지 몰라도 비대면 회의가 많아지면서 참석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좋았다"며 "Covid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진행되면 좋을것 같다"고 전했다. 최승희 북가주 차기회장은 "북가주경우는 실리콘 벨리 지역으로 공대나온 젊은 동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일도 육아도 동시에 해야되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큰 행사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모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온라인 미팅이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북가

주에서도 웹사이트를 제작중이며 미주동창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김정선 회장은 "많은 지부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층 유입에 관한 이슈를 우리 지부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말 파티때 젊은 부부를 초청해 저녁을 대접하고, 행사 중 베이비시터 프로그램을 진행해 젊은 동문들을 위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문가를 고용해 웹사이트를 진행했으며 광고비로 웹사이트 운영비를 낼수 있을 만큼 진행이 된 상태"라며 "다른 지부에서도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가주의 임준원 회장은 "뉴잉글랜드의 추천으로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 사이트를 구축했다. 웹사이트는 1-2개월 후 완성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젊은층도 문제지만 중년도 문제다. 학번으로 보면 85-65학번까지 열심히 해야되는 상황인데 중·장년 그룹의 활동이 미비하다. 이 문제도 발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며 새로운 이슈를 언급했다. 이에 워싱턴 DC의 이주희 총무는 "젊은층 유입을 위해 우리 지부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Navigator'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Automatic Search 기능으로 지역에 서울대 동문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Alert가 뜨게 되어있다. 그로인해 매달 5-6명의 동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최대한 젊은층의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도 현재 약 40%의 50세 이하 동문을 확보한 상태"며 워싱턴 DC지부의 활약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남가주 민일기 회장은 "이번 최용준 차기회장이 81학번이다. 이에 80년대 학번이 주축이된 임원으로 좀더 젊어진 남가주 동창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이명자 회장은 "연중 3번의 행사가 있지만 올해는 2-3개월에 한번씩 임원들이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으며 매달 시니어 포럼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배동문들 위주의 활동이 많은 상황으로 젊은 분들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많은 정보를 얻은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세진 미네소타 회장은 "동창회보의 좋은글을 감명깊게 읽고 있지만 필자와 독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권고드린다"고 전했다. 백옥자 조직국장은 각지부에 인터뷰에 실을만한 자랑스런 동문 추천을 부탁함과 동시에 "현재 회보에 나가는 광고와 관련해 각지부에서 1년에 하나씩만 도움을 주셔도 회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IT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유시영 케네딕 회장은 "현재 동창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중으로 좀더 눈에 띄는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각지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남 총동창회장은 "미주동창회 장학금이 약 4천달러가 있다"며 "각 지부의 장학행사 등이 있는 경우 추천해주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의원회의때 언급했던 Century Foundation 기금 관리에 대해 "현재 CD의 이자가 낮은 상황으로 손재욱 전 회장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지만 다섯분의 위원들이 함께 관리를 해야되는 정관이 있다. 이에 50만달러의 기금을 함께 관리할 위원들의 추천을 해주길 바란다"고 각 지부 회장들에게 전했다. 또 "15대 회기에 1,600명 정도의 신규동문이 등록되었다"며 더 많은 지역동창회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하며 첫 지역회장단 온라인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2월은 일년을 완결하는 달 이고 그 중 16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노량해전을 승리로 마감하며 전사해 그 치열했던 54년의 일생을 완결한지 422주년이 되는 뜻있는 날이다. 충무공의 공훈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으니 오늘은 공의 사당인 현충사 초입에 서 있지만 지나쳐 보아 그 담긴 뜻을 바로 알기 어려운 정려(旌閭) 이야기를 풀어 드리고자한다. 정려란 조선시대 충신이나 효자, 열녀에게 내려진 편액(액자)을 길목에 걸어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본 받도록 지어진 벽이 없고 기와 지붕만 갖춘 단층 구조물이다. 현충사의 정려에는 충무공 이외에 공의 조카인 이완, 4대손 이홍우, 5대손 이봉상 등 네 분의 충신과 8대손 효자 이재번의 편액이 함께 걸려 있어 4충신 1효자의 명문 중의 명문 집안임을 말해 준다. 임금이 공식으로 심사하여 하사한 편액의 '충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사한 무장에 한하기 때문에 이순신 집안은 4대에 걸쳐 4명의 무장이 국토방위 중 전사했다는 뜻이니 우리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임관당시의 기록에는 이순신의 인품과 전술에 감탄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이순신 장군에게 평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재주를 썩히지 말고 명나라 도독이 되도록 추천해 주겠다'고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 바 있다. 또한 당시의 왜구란 좀도둑이 아니라 수백척씩 집단화 된 함대 규모로 명나라의 해안지역도 침범을 하는 골치거리였기 때문에 충무공의 임진왜란 퇴치가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은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명나라의 임진왜란 원



이내원(사대 58)

충무공 이순신의 완결

/ 충무공 순국 기념 /

현창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22대 정조대왕이 하사한 것으로 그 모양과 내용은 사진과 같다. 첫 머리를 보면 정조대왕이 영예를 더한 '충신'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줄의 '유명'은 명나라를 높여 칭하는 말이니 명나라의 수군도독이라는 표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수군도독이 되었을까? 이 작위는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임명받은 실제 작위가 아니라 전사 후에 명나라에 끼친 이순신 장군의 공훈을 기려 사후에 추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관당시의 기록에는 이순신의 인품과 전술에 감탄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이순신 장군에게 평소 '이런 작은 나라에서 재주를 썩히지 말고 명나라 도독이 되도록 추천해 주겠다'고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 바 있다. 또한 당시의 왜구란 좀도둑이 아니라 수백척씩 집단화 된 함대 규모로 명나라의 해안지역도 침범을 하는 골치거리였기 때문에 충무공의 임진왜란 퇴치가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은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명나라의 임진왜란 원

군은 조선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쟁의 참화를 조선 땅에 국한함으로써 명의 영토가 전장의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방어의 의도가 컸다는 역사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순신보다 약 200년 뒤의 정조 임금이 지극한 승모의 정으로 직접 행거 현사한 편액인 만큼 근거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은 이순신과 함께 임진왜란을 치른 선조 임금이 전후에 책봉한 1등공신의 정식칭호이며 이어 그 이전에 받았던 온갖 작위가 더해져 있다. 권 울이 2등공신, 원균이 3등공신이었다. 역대 임금의 이순신 현창을 보면, 이순신 전사후 45년이 되는 1643년 인조 임금은 무인의 최고 시호인 '충무공'을, 현종 임금은 사후 천해 주겠다'고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 바 있다. 또한 당시의 왜구란 좀도둑이 아니라 수백척씩 집단화 된 함대 규모로 명나라의 해안지역도 침범을 하는 골치거리였기 때문에 충무공의 임진왜란 퇴치가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은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명나라의 임진왜란 원



현충사 정려(旌閭)의 모습

www.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실 차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위원

위원장: 윤상래
978-386-5510

신용남 회장
646-523-9606

노명호 차기회장
626-991-4457

이용락 (시카고)

황효숙 (미네소타)

손재욱 (필라)

정평희 (워싱턴D.C.)

2020년 12월 31일 접수마감

제 17대 회장
(2023. 7. 1 - 2025. 6. 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2020. 12월 31일: 차차기회장추천서접수마감
- 인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
- 2021년 6월: 전국 평의원회의(정치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확정

근거규정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합한 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 동문 시 /

가을의 명상

나의 인생길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소망과 희망에 벅찬 계획으로
젊은 열기와 끈기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하며 시작하였지



한국남(공대 57)

이렇게 먼 길은 와 보니
고달픈 몸을 가누며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나의 인생길을 돌이켜 보니
같이 가던 친구는 보이지 않고
허무한 마음만 나를 달래네

그 뜨겁던 햇살도
속으러 지고 산들 바람이
내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그 어느 날 그대와 기대했던
추수와 상패는 어디에
명상, 반성으로 채우네

무한히 넓은 바다 한 복판에서
목적없이 바람 부는 대로
뒤통도 샷대도 없이
멀리 보이는 저 구름 건너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
나는 겸손히 그 품에 안기네

2020년 가을을 맞으며
옛날의 꿈을 회상하면서

/ 동문 시 /

낙엽(落葉)

산머루 떨어진 길섶변으로
누워 나뭇구는 퇴색한 얼굴.
계절(季節)이 그렇게 남기고 간
흔적일 수 없는 진액의 눈물 자국으로
패어진 흙 따라 새겨진 갈색 마음이
말라비틀어진 얼굴로 슬픔을 토한다.



이경림(상대 64)

조용한 울부짖음은
체념(諦念)이 있는 무저항(無抵抗)
살다가 못다한
한(恨)이 서려 생겨난 주름인들
시간(時間)을 거슬러
운다고 해서
퍼질 수야 있겠는가.

사람들이 걸어간다.
남길 모습이기에
길바닥 밟히는 곳에
떨어져 누운 자리를
조심스레 비껴간다.

/ 미국시인 소개 /



Stanley H. Barkan
스탠리 H 발칸

1936년 뉴욕시내 브루클린에서 출생.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출판사 편집인 겸 출판사 대표이다. 지금까지 400권의 시집을 50개 언어로 발행. 그 자신이 18권의 시집을 펴낸 미국시인이며 번역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최근에 시집 『Brooklyn Poems』 (The Feral Press, 2016)을 출간했다. 2016년에 유럽 호머시문학상과 예술훈장을 받았다.

The Cats of Brookly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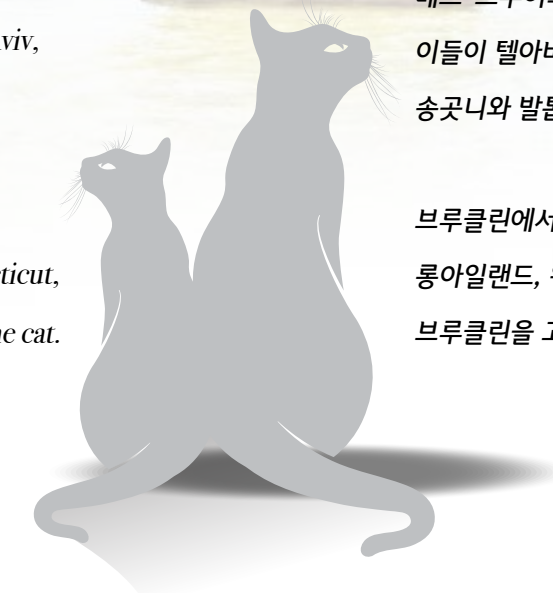
Brooklyn cats breakfast on birds.
No canned wet pet food for them,
nor kibbles & bits of dry food.

Brooklyn cats are street cats.
They rule rooftops, fire escapes, and fences.
They roam backyards and alleyways
and won't be confined
in condos, cages, or courtyards.

These are the cats of Brighton, Borough Park,
Bay Ridge, Bensonhurst, and Bushwick.
These are not the cats of Manhattan,
Queens, Staten Island, or The Bronx.

These Brooklyn cats are tough, not even
the big dogs of Bed-Stuy will tangle with them,
knowing they, like their cousins of Tel Aviv,
fiercely fang and claw all comers.

You can take the cat out of Brooklyn
to Long Island, Westchester, or Connecticut,
but you can't take the Brooklyn out of the cat.



브루클린 고양이들

브루클린 고양이들은 새로 아침식사를 한다.
그들에게는 젖은 애완동물 사료통조림은 안 되고
건조한 사료도 안 된다.

브루클린 고양이들은 거리고양이들이다.
그들은 옥상, 화재 탈출구와 울타리를
지배한다.
그들은 뒷마당과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콘도, 우리 또는 안마당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이들은 브라이언, 보로공원,
베이 리지, 벤슨 허스트, 그리고 부시위 고양이들이다.
이들은 맨해튼, 퀸즈, 스탠티 아일랜드
또는 브롱스 고양이는 아니다.

이 브루클린 고양이들은 억세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스투이의 큰개들도 이들과 꼬이지 않는다,
이들이 텔아비브의 사촌들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을
송곳니와 발톱으로 맹렬하게 긁는 것을 알기 때문에.

브루클린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또는 코네티컷으로 갈 수는 있어도
브루클린을 고양이에게서 빼낼 수는 없다.

시작 메모

I grew up in East New York, Brooklyn. I always liked cats, which are so beautiful and independent. I used to see cats in alleyways, on the sidewalks, in backyards, on rooftops. For a time, I had some cat pets. Later, when I came to own my own home in Merrick, I always had a house cat—first Pyewacket, then after he was killed by a car, Pumpemickel, a very large long-haired Maine Coon. When I walked her on a leash, it caused cars to back up and wonder at what she was. I also came to take care of a dozen feral cats. I was known as the Catman of Merrick. Now, with the demise of Pumpemickel, I'm catless. But I have a book I wrote for all my cats. It's titled Pumpemickel, and it's in English and translated into Farsi. Now I'm hoping to have another cat, as soon as my wife, Bebe, will permit it. Perhaps on 26 November, my 84th birthday.



이기홍(수의대 50)

<지난호에 이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가니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나침반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목적지를 못 찾아 할 수 없이 혼란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도움 받으려 산골 민가에서 막걸리 대접을 받고 돌아 갔더니 훈련 하사관이 의도적으로 산에서 놀다가 왔다고 야단을 치면 단단히 기합을 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가 GPS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GPS는 항상 큰 길로 인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지시를 한다. 셋길로 가면 목적지에 거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무시한다. 한적한 시 외곽에 사는 셋째 딸집은 내가 사는 곳에서 GPS를 무시하여 작은 시골셋길로 가면 30 분이면 갈 수 있고 큰길로 가면 1시간이 걸린다. 하루는 딸집에 셋길로 갔다가 해가 떨어지기 한 시간 전에 집에 내출로 돌아 오는데 큰길이 아니고 셋길로 올때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셋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받으려 GPS 지시 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시골 셋길이라 도로 표시판도 많지 않으며 잘 보이지 않고 약 1시간 운전을 해도 시골셋길만 달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주변이 캄캄한 암흑이 되니 겁이났다. 내 위치를 알아야 딸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구할수 있는데 모르니 연락 하면 걱정 할 것이니 전화를 하지 않았다. 큰길로 가서 자기 위치를 알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집에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나서 GPS를 무시하여 운전 하다가 큰 길로만 몇번 들어가 운전을 계속 하였더니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무사히 집에 왔다.

GPS는 잘못 알려줘도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계속 엉뚱하게 지시를 한다. 필라델피아 시내 고층건물이 있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목적지점 근방에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점에 인도를 못하고 목적지를 중심으로 변화가 시내를 몇바퀴 돌고 돌아왔다. 할수없이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니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도를 보면서 겨우 찾아가는 경험이 있다. 그 쓰라린 경험담을 친구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고층건물이 많이 있으면 전파가 GPS에 연결이 안되 그런일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 연결기능 (A)은 digital Christmas card 뿐만 아니라 우리가족에게 미치는 영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첫째 딸에는 자식이 없다. 둘째 딸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셋째 딸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셋째 딸 집에는 어릴때 부터 손자 손녀는 집에서 좋은 Computer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손자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자기 가족 소개 한다고 Video를 제작하여 보여주니 나는 놀랐다. 그 손자는 Virginia Tech, Computer 학 전공으로 장학금 받고 입학하였었으며

대학 1학년 때 Computer회사에 part time로 학생들 Computer 문제를 해결 하는 조건으로 취직이 되었다.

그리고 4학년때 회사 정직원이 되어 일하면서 졸업 하였다. 내가 그 손자 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하루속히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하였더니 직장 생활하는데 학위는 필요없고 만일에 필요하게 된다면 진학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하여 딸들에게 학위문제를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Computer 분야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손자가 대학 다닐때 내 Computer에 문제가 생겨서 열락하면 Virginia에 있으면서 내 Computer file 문제를 해결하였

“

한국 TV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인지 기능의 상실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인간로봇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 환자와 로봇간에 대화하는데 로봇이 얼굴은 완고한 인형이며 아무런 감정의 표시가 없다. 반면에 치매환자는 기쁨과 슬픔의 표시가 음성과 얼굴에 나타났다. 로봇과 환자간에 인간으로서 서로 교감이 되는 인정미가 없다. 내가 인간로봇을 싫어하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서로 교감이 되는 감정을 느낄수 없다는 점이다.

”

다. 해결 할때 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리켜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 자기에게 연락하면 즉시 해결해 주겠다고 먼저 소개 하였다. 어릴때는 병아리 셋기처럼 손자 손녀 들이 MacDonald에 내 뒤를 따라다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 그 손자가 시간이 없다고 내 요구를 거절하니 섭섭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일하던 DuPont 화학 회사 에서는 학사 학위 소유자는 Research Group Leader가 될 자격이 없고 연구실 Technician 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Computer 분야는 박사학위가 필요없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변한것 같았다. 우리나라 학벌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내게는 납득이 안가는 논리이다. 그러나 내 주변 박사학위 소유자 가운데 실지 연구분야에서 연구 능력을 보면 크게 차이가 있다. 고로 학위를 무시하고 연구실력 본위로 대우 받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다.

손녀는 Penn State University 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Northwestern University 공대 화공과 대학원생으로 장학금 받고 입학을 하여 내년에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요즘 Coronavirus 때문에 학교 연구실에 가지 못하면 연구를 못하여 박사학

위를 내년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이 되어 딸에게 물어 봤더니 손녀가 하는 연구는 주로 Computer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연구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화공과 계통 연구는 화학물질과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Computer로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었다. 이 세상은 Computer 세상 으로 변하고 있으니 Computer를 모르는 사람들은 점차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탈락되고 빈곤한 생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둘째 딸의 손녀는 어릴때 부터 Computer와 인연이 없었지만 손자는 Computer에 매일 매달려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손녀는 Philadelphia에 있는 6년제 Jefferson 의대를 졸업

품으로 생각하여 끼거히 받아 드릴것 같다. 1990년도 초 까지 여행 할때는 사진은 color slide로 하여 촬영하였다. 그 당시 사진기를 가진 여행객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도 중반에서 부터 digital camera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었다. 역시 소수의 여행자가 그런 camera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직업이 병리 해부 전문가였으므로 몇십년 동안 흑백 사진으로부터 color 그리고 digital camera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물질을 증거 품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자연히 성능이 좋은 큰 camera로 경치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단체여행 할때는 사진사 역할을 하였음으로 인기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여행할 때는 여행자들의 사진을 찍는다고 관광 안내원이 설명을 듣지 못하여 자기희생을 하여 봉사를 하였다.

여행이 끝나면 color사진은 color slide로 복사하고 digital camera 사진은 CD와 USB로 복사하여 여행자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니 당대 여행자들이 해외여행을 갈때는 같이 가자고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데 과거 5년 전부터 여행자 전원이 스마트폰으로 각자 사진을 찍게되니 누구도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의 사진사 역할이 없어지고 쓸모없는 여행객이 되어 실망했다. 세상이 변하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내 직업과 사진기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병리 해부하면 육안으로 관찰하여 병변이 있는 내장 장기를 증거품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그리고 병변이 있는 부위 조직을 절제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사진을 찍는다. digital camera가 나올때 까지 흑백 사진을 찍었다. 암실에서 film를 현상하고 print 까지 내 손으로 하였으니 내 솜씨는 직업 사진사 못지 않았다. 옛날 사진기는 사진기의 조리개와 거리는 육감으로 조절하여 사진을 찍었으니 경험이 필요 했다.

Schofield 박사 (우리나라 3.1 운동 공노자, 서울대 수의가 대학 교수)가 나 에게1963년에 Canada, Toronto 대학에 소속된 Ontario 의과 대학에 유학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유학가는데 조건은 병리학 교실에서 1년 동안 병리 해부하여 육안으로 병변의 있는 장기를 관찰하여 병의 진단을 내릴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귀국하여 대학에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해부하게 되면 교제로 질 좋은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일제 사진기를 구입 하려고 사진기 상점에 갔다. 일제 중고 사진기를 약 \$100를 지불하여 썼다. 그 당시 대학 조교수 월급이 약 \$100 정도 였다.

<다음호에 계속>

/ 살며 생각하며 /

마지막 한장의 크리스마스 카드②



이회백(의대 61)

/ 회고글 /

그리운 옛날

내가 1972년 아라스카로 이사갔을때 아라스카 인구는 32만 5천명이었고 Fairbanks 인구는 2만명 미만이었다. 아라스카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자 Fairbanks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1976년에는 3만5천명을 넘어섰다. 내 이야기는 이때의 Fairbanks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이야기다.

Fairbanks에서 비행기로 뉴욕에 갈려면 하루 단 한번 운항하는 PAN AM을 이용해야만 했다. Guam을 출발해 동경 하네다 공항을 거쳐 Fairbanks에 내렸다가 뉴욕으로 가는 노선이었다. 이 PAN AM이 Fairbanks 를 경유하는 이유는 연료를 실어야 하기때문이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동경에서 뉴욕까지 직행할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다. 인구가 3만명인 도시에서 뉴욕에 갈 손님이란 손가락 꼽을것도 못되니 승객 몇을 싣기 위해 내리지는 않는다. 공항사용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착륙연료비도 건지지 못한다. 그러나 노선 운행 시간을 정할때 Fairbanks 승객 사정은 고려대상이 될수없다. 동경과 뉴욕 손님에게 편리하게 시간을 짜자니 Fairbanks 는 항상 밤 열두시가 도착시간

이 된다. 소위 "Red Eye Express"를 타야만 되게 마련인데 동부지방에 학회가 있어 뉴욕에 갈때마다 누워서 비행기 올 때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어느해에 이렇다가 깽뎛 좋았다. 깨어보니 비행기 출발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런 실수를 하고서도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번도 제시간에 도착하는것을 본적이 없고 30분 연착이면 꽤 성적이 좋은 편이라 오늘도 그러려니하고 여유 만만하게 비행장에 PAN AM 번호 다이얼을 돌렸다. 그때는 펀치 전화도 나오기 전이다.

"어.. 비행기 언제 도착하지요?" PAN AM이 여기를 출발하는 항로는 뉴욕행 하나뿐이라 어느 비행편을 말할 필요는 물론 없다. "다들 비행기에 탑승 했습니다!" "예? 저 오늘 뉴욕에 가야 하는데....." "기다릴테니 빨리 오세요."

뜻밖의 "호의"에 수화기 집어던지고 부랴부랴 가방을 싣고는 비행장으로 차를 몰았다. 여기 비행장은 시내에서 5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시 외곽에 있는 내집에서는 12분쯤 걸린다. 작은 동네라 오는데 얼마 걸릴것인

가는 물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든 모양이다. 그때 Fairbanks국제공항(국제라는 명칭이 무색하지만 국제대는 국제대)은 비행장 앞 마당이 주차장과 주차장 차단기도 없다. 무료니까 물론 아무 수속이 없어 급한데 시간절약이 된다. 차가 몇대 없으니 주차 간격을 위한 흰 줄 같은것도 없어 적당히 아무데나 세우고 떠나면 그만이다.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끌어안고(그때는 바퀴 달린 Samsonite는 "발명" 되기 전이다) 헬레벌떡 ticket counter로 달려갔다.

그때 Fairbanks 국제공항은 Departing이고 Arrival이고 구분이 없는 단층건물 이어서 달려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좌석예약도 비행기표도 사지 않았었다. 매년 그렇게 했어도 한번도 못한 적이 없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내 credit card만 내밀면 표를 끊을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번개같이 비행기 표를 움켜쥐고 gate(몇발짝 안되는 거리다)에 달려가자 직원이 gate 문을 잡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았다. 비행기 승객들의 환영(아니, 눈총)을 받으며 내 자리에 앉자

마자 비행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적정고도에 도달하고 seat belt를 풀어도 된다는 종이 울린지 얼마후 나를 유심히 쳐다보던 내 옆자리 승객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무슨 용무를 보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삽니다." 하자 놀란듯 고개를 가우뚱 하더니 "아니 여기서 살다니 무엇을 하시며 사시나요?" 세상에 이런데서도 사람이 산다니 하는 표정이다.

"예, 그저 여기서 삽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런데서 사람이 살수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바꾸지 못하기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것은 40년전 이야기다. Fairbanks 인구도 오늘날은 10만이넘었다. 내가 한 1972년에 비해 다섯배 이상 늘은 셈이다. 9-11 이후 까다로워진 비행여행 규측에 익숙해진 오늘날 사람에게는 꿈같은 소리로 들릴것이다.

40년이란 세월은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먼 옛날이라 할수없다. 그럼에도 오늘날에 돌아켜 보면 꿈같은 그리운 옛날이 되고 말았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나의 2020년 / 우리의 2021년

올 한해는 2020이라는 숫자만큼 평가 특별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으로 인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변화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가진 작은 행복, 그리고 Covid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느낀 감사함 등으로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겨낼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분명 더 나은 해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Covid-19이 사라지고 모두들 거리두기가 아닌 몸도 마음도 가까워진 거리로 만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미주 동창회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을 다짐하는 동문들의 글을 모아 특집으로 실고자 합니다.

글을 보내주신 동문들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의 주제 나의 2020년과 우리의 2021년
글의 양 레터용지 한장반 이내(11 pt.)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da.org 로 보내주시시오
제출기간 2020년 12월13일 까지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15대 임기 2년간 매달 발행한 동창회보를 모아 2021년 6월 기념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원고 또한 기념집에 실릴 예정이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훈장 수상, 한인사회 위해 더 힘쓸것”

힘든 유학시절 보내고 ‘아메리칸 드림’이룬 부동산 재벌로



-1970년 유학생으로 온 후 미국에서 50년 간 많은 사업과 사회활동을 하셨는데

처음엔 우선 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 유학생 시험으로 여권을 받은 후 University of Wisconsin 전기공학과에 입학했고, Wisconsin 대학에서 M.S. Degree를 받은 후 73년에 UCLA로 와 77년에 Ph. D. Degree를 받았다. 그 후 부동산업에 흥미를 가졌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서울 공대 교수직까지 확보했는데 Hughes Aircraft 회사에서 Job Offer가 오는 바람에 미국에서 경험을 좀 쌓고 한국으로 가려고 Hughes Aircraft에 입사했다.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해 보니 그 회사에서 처음 시작된 Project라 잘 맞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동료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집과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하면 어떻까하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찡찡거리더라. 고생고생해서 Ph. D까지 따놓고 부동산이냐. 그런데 며칠후 아내가 사람이 한 번 사는 세상인데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데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해주었다. 부동산업이 안 맞으면 다시 회사로 갈 수 있도록 회사에 Leave of Absence 6개월을 받고 비즈니스를 파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 한국 이민 붐이 불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비즈니스를 많이 팔았다. 돈이 조금 모이면 한인타운에 있는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그 후 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부동산, 건축사업을 하며 운이 좋아 많은 도약을 했다. 그러나 92년 폭동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지하철공사 등으로 Wilshire 가의 고층 오피스 건물 및 아파트 등,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나 88년에 우연히 시작한 한남체인이 있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조그맣게 시작한 한남체인이 그 후 주주 비즈니스로 성장하여 다시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이 공개 자료만으로 평가해도 1억 달러가 넘는 정도다. 400만 불에 매입한 워셔 갤러리아가 5천만달러 매각, 6가와 알렉산드리아 체프만 프라자, 라스베가스 골프장 외 20여 곳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 이른바 재벌이 된 것은 이민초기 아내의 눈물 어린 내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1967년에 서울 공대생이었던 나는 경기여고 졸업하고 이대 불문과 학생이었던 아내(장경희)와 미팅에서 만나 5년이나 데이트하다가 71년에 미국 Wisconsin에서 결혼했다. 결혼 비용은 \$100들었다. 피검사(그 당시 결혼하려면 피검사부터 했다), 목사님 주례비, 케익 등친구한테 사진을 부탁했는데 잘못해서 우리는 결혼 사진이 없다. 그리고 딸들을 두었다. 모두 결혼하고 또 손녀딸만 3명 있다. 큰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아이 두명 낳은 후 그만두고 지금은 Bank of Hope에 이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다.

- 유학시절의 어려웠던 점을 기억하면서 한남체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신지?

유학시절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 Research Assistant로 일하면서 300불 정도 받아 근근이 생활했고, 그 당시 Gas 값이 Gallon 당 29c였다. 일주일에 \$20 이상은 식비로 쓸 수가 없어 학교에서 주는 텃밭이

/ 사람, 사람들 / **하기환 박사 (공대 66)**

'리더스피워'가 강한 하기환(공대 66)동문은 LA 한인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온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번 세계한인의 날 국민훈장을 받았다. 투철한 봉사정신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성공한 재력가로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같은 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환 박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에도 명석함과 폭넓은 인간 관계, 단단함과 지질 줄 모르는 봉사의 성품으로 견뎌내 이민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냈다. 숭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하기환 박사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백옥자 조직국장>

있었는데 농과대학 출신은 배추, 무를 심어 김장까지 하는데 우리는(나와 아내) 잘 자라는 깻잎만 심어 먹었다. UCLA에 와서는 아기도 생기고 Teaching Assistant로 일하고 아내가 부업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 UCLA Married Apt 가 405 Freeway 바로 옆에 있어서 정신병 걸릴 정도로 소음과 싸움을 했다. 낮에도 소음을 막으려고 창문에 담요를 쳐 놓아 밤처럼 캄캄하게 살았다.

- LA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일들이 많아 이번 2020년 세계 한인의 날 무궁화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소감과 한인회를 위해서 성취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순수한 봉사 정신이 이번 세계한인의 날의 무궁화 국민훈장을 받게된 것 같다. 한국에 여행중에도 소식을 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상을 받게되어 그 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한인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성의를 다할 것이다.

1992년 4.29 LA 폭동 때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있었고 또 그 당시 한인회장이 부재중이라 내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했다. 총까지 차고 다니면서 한인타운 수비에 앞장섰다. 폭동 후, 성공으로 걷은 자금 문제로 타운이 서로 싸우고 반목이 커져서 많은 고생

을 했다. 2000년부터 4년간 한인회장 하면서 제일 추억에 남는 일은 World Cup 응원이다. 그 당시 한인타운 지역 시의원이었던 Nate Holden 씨와 협상하여 그 때 새로 지은 경기장 Staple Center 를 1달러에 빌려서 열렬한 단체인원을 펼쳤다. 2만 명이 새벽에 모였다. 그 이벤트가 비로소 한인회가 미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한인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인노인 커뮤니티센터 건축도 굉장하신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인노인 커뮤니티센터 건축 기금모금 없이 개인 보증 2백만불 빌려서 완공 시키고 완공 후 LA시 CRA기금받아 무사히 완결하는 중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Personally Guarantee 한거라 잘못될 경우 물어내야 하는 큰 심적 부담이 있었지만 코로나 19 사태 전까지는 한주일에 2천명이 드나드는 타운 센터로 애용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기부활동도 많이 하셨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에 어너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 불우 이웃돕기에 1억(10만불) 기부한 것이 생각난다.



하기환 Square 현판식 앞에서 가족과 함께



2016년 전라남도와 수출협약을 체결한 하기환 동문(오른쪽)과 이낙연(전남) 당시 전남도지사.

술선수범 봉사로 L.A. 한인사회 발전 기여한 공로
14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자 무궁화 국민훈장 수상
'한국 어너 소사이어티' 불우이웃돕기 1억 기부 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이번 2020년 10월 한국여행에서 한남체인과 전라남도 MOU를 체결하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전라남도의 특산물 수입으로 내가 경영하고 있는 한남체인의 먹거리의 질을 높이고 한국 수출 도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MOU를 체결하고 왔다. 강원도, 목포, 여수, 기장을 돌며 전라남도 군수와 수출업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공장 견학, 어물시장도 방문하는 등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많은 어류 및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앞으로도 한국과 유대를 공고히 해서 한국의 좋은 음식을 미국에도 많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방문은 한국 남한을 돌아보신 것 같은데 어디를 여행하셨으며 인상에 남는 곳은 어디인지요?

비즈니스로 가서 관광은 많이 못했지만 목포가 많이 인상에 남는다. 언덕에 올라가면 한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도시가 바다를 끼고 아름답고 정겹게 느껴졌다. 해방후 일본인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 창고, 옛날사진관 세금으로 걷어 들었던 곡식창고 등 옛정취가 많이 남아있었고, 아침식사로 먹은 말린 조기국은 환상이었다.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언덕 동네에는 할머니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시로 써서 집집마다 걸어 놓았는데 그분들의 파란만장한 사연에 울컥하면서 그 역경을 이기며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삶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하루하루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또한 즐겁게 사는 것이다. 바쁜 중에서도 일년에 1/3 정도는 여행을 하며 머리를 식히고 산인생 공부를 많이한다. 나이 70이 지났지만

아직 Retire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할수 있을 때까지 지금하고 있는 Business와 기회가 주어지는 한 Town 봉사를 계속 할 계획이다.

-여가를 위한 취미생활이 있다면?

스키를 지금도 좋아해서 와이프와 같이 캐나다 휘슬러 스키장에도 가고 별장이 있는 맘보스에도 눈 올때면 자주 즐기러 가곤한다. 그의 Time share를 일주일씩 콜로라도 베일, 유타, 팍시티. 캐나다 휘슬러에 있어 일년에 1주일씩 가고 코로라도 1월말, 유타 2월말, 캐나다 3월말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 밖에 골프와 낚시를 위해서 지금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 1만오천 SQ. ft. 별장을 짓고있는 집은 2021년 3월에 완공되면 더 바쁘게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을 것 같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각 지부마다 동문들의 열성으로 모임, 행사, 피크닉 등 많은 Event를 즐기고 있다. 앞으로 동문간의 친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각 지부 동문들의 소식을 회보를 통해서 접하게 할 수 있는 회보를 만들고 수고하시는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어너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 불우이웃돕기 1억 기부자들과 함께한 하기환 동문(왼쪽부터 세번째)



▲아내 정경희 여사와 함께
◀스키를 즐기는 하기환 동문 부부



만 했으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 바람직한 미주 한인사회의 미래상은

1세대와 15세대 2세대가 모두 어울려서 멋진 한인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바란다. 최근에 벌어진 Homeless Shelter에서 보였던 편협성을 보면서 우리가 민족으로 미국사회에서 성공은 하고있지만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만 편하고 잘살고 주변의 타민족 및 소외된 계층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반성을 해야 될 줄 믿는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교계를 중심으로 엘에이 다운타운 Homeless에 사랑의 점퍼, 담요, 텐트 등 무수한 도움의 손길을 준 한인인 막상 자기들 주변에 Homeless Shelter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광적인 반대 운동 등 주류사회 및 타민족이 보는 한인사회의 이윤배반적인 반응에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65명 수용하는 Shelter 반대를 위해 15,000불씩 드려서 LA Times 전면광고 등 과격한 반대는 한인사회가 Nimby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매김을 할 때 앞으로 제2의 폭동이 흑시라도 나가 되면 주변의 타민족 및 주류사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Protection을 못 받고 92년도 폭동처럼 한인사회만 Target이 되어 큰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것이다.

약 력

- 경기고 졸업
- 서울대 공대 (66 입학)
- 30여년간 한인상공회의소이사과 4년간 회장
- LA 한인회 회장
- 코리아타운경찰위원회 이사장
- 웰셔센터 코리아 주민회의 의장
- 1992년 폭동 당시 연방의 긴급보조 자금 수억불이 폭동 유해 한인들에게 지원토록 노력
- Doctor Kee Whan Ha Square 현판식
- 서울대 미주동창회 총신이사



김광현(미대57)

/ 미술작품 읽기 /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앤디 워홀의 ‘최후의 만찬’ ①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중심의 문화가 쇠퇴하고 인본주의의 인간중시의 르네상스(1350년경-1660년)대에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 da Vinci, 1452-1519)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미켈란젤로, 라파엘, 보티첼리와 함께 4인의 한 사람으로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진 다재 다능한 천재로 인정되어왔다. 그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해부학, 식물학, 천문학, 지리학 등 예술과 과학을 통한 인류 문화의 넓은 분야에 기여해 온 선각자이기도 하다.



다빈치는 네살때 유명한 스승인 베로키오(Andrea del Verrocchio)의 공방에 들어가 스무살까지 그림과 기술을 습득하며 화가로 자질을 갖게 되었으나 1481년, 베로키오의 작품인 그리스도가 요한에 의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림인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스승을 돕는 다빈치가 그린 한 부분인 두 천사의 표현은 스승의 솜씨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다빈치는 1481년, 도시국가인 '미라노'의 귀족가문에 초빙되어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 수도원'(Chiesa di Santa Maria delle Grazie) 식당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석회벽이 건조되기 전에 수용성 채색을 하는 프레스코(Fresco) 기법으로 '최후의 만찬'(Last Supper, 460x880cm, 1495-1498)을 3년을 넘게 완성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스프마토(Sfumato, 이태리어) 기법인 색과 색사이의 구분을 짓지 않는,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묘사법으로 했다. 또한 그의 다른 명작, '모나리자'(1503-1505)도 같은 기법으로 인물의 배경은 그가 수리학(水理學)과 자연환경을 연구했기에 신비로운 물의 흐름을 그려 넣었다.



▲(맨위)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위)앤디 워홀의 '최후의 만찬'
◀ 베로키오의 '그리스도의 세례'

미술사를 통해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작가 나름대로의 묘사기법과 시대적 변천이나 각 나라의 전통과 관습 등으로 달리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팝 아티스트'인 미국의 화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 그린 '최후만찬'은 그리스도의 천천백력의 경이로움의 선인, 즉, '너희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 하리라'(One of you will betray me, 요한복음 13:21, 누가복음 22:14-23)라고 하는 분위기와 그림의 인물들인 그리스도를 비롯한 12제자들의 심리묘사와 표정들은 완전히 제외하고, 오직 '팝 아트' 기법의 유희성과 비속성의 모티브들을 배열한 여러 점의 작품은 조형의 기본이 되는 창의성을 배제했다. 허물며 뜻 깊은 최후 만찬의 작품을 다만 '패러디' 그림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 12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주는 분위기를 오직 만화나 유희성의 즐거움인 먹

고 마시는 시간으로만 표현한 상업성의 작품들도 많이 보게 된다.

다빈치는 1489년, 인체와 말(馬)의 해부학, 새(鳥類)들의 비상, 광학(光學)에 원리, 도시 계획안 등의 연구기록을 남겼으니 작업시에 화면구성과 표현은 환경적 배경의 묘사로 실증성을 중요시 했기에 실내외의 공기의 유통성과 그림의 대상과 빛의 관계 및 조형물의 안정감 구도법을 적용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심리적 평온함이 12제자들을 안심케하고 있으며, 이날 최후의 만찬의 화법을 그리스도의 최후의 생을

미리 암시 하듯 어두움을 느끼게 표현하였으며, 12제자들의 서로 다른성품을 그들의 몸짓과 손짓이 서로다른 동작으로 표현했고 제자들이 세명씩 네 그룹으로의 표현은 성경의 4복음서를 암시했고 중앙의 큰 창문은 그리스도의 후광을 잘 표현하도록 배치했으며 3개의 창문은 성 삼위일체를 표현했다. 또한 이날은 유월절의 절기인데 번제의 관행은 어린 양을 제물로 하지만 그는 물고기를 접시에 담았다. 희랍어인 물고기, ICHTHUS로, 예수 JESUS, 그리스도, CHRISTOS, 하나님의 아들, THEON UIOS, 구세주, SOTER 등의 첫 단어의 조합으로 구세주 예수의 형상을 더 부각했다고 전래 되어 오고 있다.

한편 다빈치는그날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가롯 유다가 온돈 30년에 예수를 배반한 성품과 표정을 표현하기 위해 1년을 넘게 밀라노의 외곽 빈민가인 '부리기타'(Brigita) 마을을 답사했으며 유다의 얼굴을 약간 검은 얼굴에 핏기가 없고, 돈 지갑을 움켜쥐고 있어 그의 심리적 동요와 초조감이 탁상위에 배치한 소금통을 얹는 불안감을 갖도

록 묘사했다. 이와 같이 다빈치는 인체 해부학의 연구로 인해 인물 묘사는 인체의 골격과 심리성 표현을 중시했고 환경과학과 지리학의 연구로 실내배경 화면은 안정감을 주는 피라미드구도의 조형성을 했으며 미술화법의 명암 대비법과 유희기법 등이 전파되었다.이 명작을 감상하는 실제 관람자라면 누구나 식탁에 와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고 싶도록 가상현실의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긴 세월 동안 이 작품이 퇴색되어 왔으나 1999년, 완전히 보완되어 잘 보존돼 오고 있다.

다빈치는 평소 '나는 기적을 만들고 싶다.'는 굳은 신념으로 오랜 기간의 연구로 수 없이 많은 기초 스케치를 했었다. 그러나 반대로 앤디 워홀은 그림의 풍유와 예술성을 중요시 했다가 보다는 양산을 위해 '나는 기계가 되고싶다'는 말을 하고 실제 '앤디 워홀 공장'을 뉴욕에 세웠으니 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빈치는 오랜기간 동안 음식과 참기 힘든 불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정을 다해 창조한 역사적 명작이 되었기에, 1980년, 그림이 있는 '그라치 수도원'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살며 생각하며 /

“18년 6개월 남았다”



최영태(문리 67)

오늘은 2020년 9월 30일, 내가 태어난 날인 1949년 3월 30일부터 꼭 71년 6개월 되는 날이다.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꼭 18년 6개월이 남았다. 2019년도 작년엔 나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96세 어머니는 94 세이셨다. 두 분 모두 90세까지는 그런데대로 건강을 유지하며 사셨다. 그런데 90 세 이후부터는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셨다. 돌아가시기 3~4년간 아버지는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어머니는 치매 증상까지 겹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겪으셨다.



▲ “전생”이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사상이다. 환생과 윤회설은 사람이 죽음과 재생을 끊임없이 순환하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오고가며 돌고 있다는 믿음이다. 윤회는 힌두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교리에 영향을 끼쳤다. (사진 출처=krishna.com)
▶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상의 경계를 나타낸 육도윤회도. (사진 출처-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나는 작년 아버지를 3월에 어머니는 9월에 각각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만 90살 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다가, 만 90세 되는 날 2039년 3월 30일에 안락사로 세상을 떠나겠다” 라고

한국에서 나온 어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70세까지 살 확률은 86%, 80세까지 살 확률은 30% 그리고 90세까지 살 확률은 5%라고 한다. 즉 90 세까지 살 확률은 2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90세에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결심하여도 그 전에 사망할 확률은 무려 95% 가 된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에 유전인자를 생각해보면 나는 90세까지는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때까지 살게 된다면 남에게 폐끼치지 않고 안락사로 나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다. 세상에서 안락사로 사망하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란다. 무려 4%가 안락사를 선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자국민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스위스는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안락사를 허용하므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위하여 스위스로 간

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예컨대 3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고통이 심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2010 년 이후 약 20 명 정도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안락사는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해서 좋다. (죽는 날짜와 죽는 방법까지 내가 결정하니까) 둘째, 사후의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예컨대 유언, 유산 집행 등을 분쟁에 여지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날짜를 세 가면서 사니까, 하루하루가 더욱 귀하고 값지게 여겨질 것이다.

넷째, 나는 살아있을 때 나의 장례식을 할 계획이다. 예컨대 나는 내가 죽기 30 일 전인 2039 년 3 월 1일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해서 이별을 위한 장례식을 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할 수 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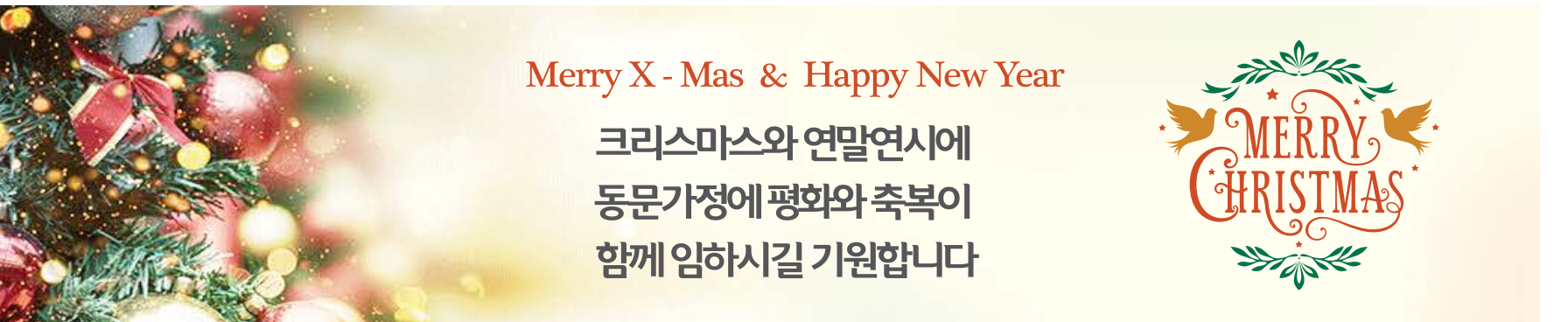
나는 삶이 4계절처럼 주기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윤회와 환생을 믿는다. 즉 사람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저세상인 영계 즉 Spiritual World로 가서 그의 본체와 결합하고, 다시 때가 되면 Material World 인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된다. 물론 전생의 기억은 지우고 다시 태어나지만 때로는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7 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는 2 차대전 때 전투기를 운전한 파일럿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몰던 전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2차 대

전 때의 전투기와 비교해보니 완전히 일치했다고 한다.

유투브에 가서 “환생” 또는 “윤회” 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나는 내가 믿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나의 견해, 그리고 내가 안락사를 결심하게 한 자세한 이유와 배경을 유투브에 이미 공개하였다.

유투브에서 “일공 최영태” 를 검색해서 제 25강, 26강 “삶의 주기 1, II 를 시청하면 된다. 나는 나의 삶을 90 개국을 여행하는 세계일주 여행으로 비교하고 싶다. 이미 72개국의 여행을 마쳤고 앞으로 18 개국만 더 여행하면 내가 떠난 곳인 나의 영적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음미하면서, 세계 일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정정합니다... 지난 11월호 17 페이지 이건일(미대 62) 동문의 원고 “시간이 걸려야 좋은것들” 중 사진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Tafelspitz"이고 오른쪽 사진이 "Bouillabaisse"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세경(약대 61)

어느 여름날의 명상②

/ 삶과 생각 /

<지난호에 이어서>
내가 당시에 일하던 회사는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었는데 입사 후, 나는 여러개의 암 진단 시약을 개발한 후 심근경색 진단시약을 개발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내 일생을 암연구에 바치겠다고 내가 암연구에서는 아무런 특유한 공헌을 하지 못했는데 심장병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설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백질 화학을 전공하고 면역학을 연수받은 나의 배경에 적격인 과제였다.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과사된 조직을 검출하는 이 시약은 미국인들에게는 의 제1의 사망 원인이 심장병을 진단하는데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고 한다. 시판된지 22년이 된 이 진단시약 (c-Troponin-I test)은 지금은 전 세계에 보급되어 미국에서만도 약 \$1 billion(1조원)이 넘는 이득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도움을 받아 심장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지난 50년동안에 73%나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외국인인 들어옴에 따라 변화된 미국인의 식생활과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동안에 발달된 의학의 기술이 그 반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시약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볼란서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틀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였던 말이 확증이 된 것이었다. 이러한 나와 내 팀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약을 쓰고 있는 회사는 그 높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나와 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커녕, 내 공적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다. 이런것을 보면 개인의 능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자본주의 미국 대기업의 망덕을 잘 엿볼 수 있다.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 미국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실망하여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던 일을 이해하게 된다.

다행이라고 할까, 나는 과거의 교직 생활중, 나의 남편이 된 하버드 치과 대학의 석좌교수 Dr. Gerald Shklar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불협화음적인 내 부모님들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 자란 나는, 내 이상에 맞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서 암 연구를 하다 죽겠다고 독신 생활을 고집한지 30년만에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나를 잘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었으며 때로는 내가 해낸 일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까지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구강병리학의 개척자이고 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으며 50년의 학계생활을 통하여 수천명의 치료의사와 학자를 길러낸 교육자였다. 그는 또 유유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의 50년의 교직생활을 통하여 한번도 음성을 높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유달리 다양한 취미를 가졌던 나의 남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350편의 논문과 5권의 치의학 교과서, 그리고 2권의 치의학 역사책을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젊은 시절에는 오케스트라

와 홀출연도 하였고 심포니까지 작곡한 음악가이기도 하였다. 하버드에 와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홀출연 연주하는데 보냈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훌륭한 인물이었고 과연 그는 하늘이 나에게 보낸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때 흘린 한 줄기의 눈물은 이제 내 속에 슬픔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가 주고 감 강석 반지는 오늘도 영롱한 빛으로 상한 나의 가슴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그는 비록 멀리 떠나갔으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교, 그리고 나의 조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 와서 다시 홀로 가계된 외로운 나의 여생에 많은 위로를 안겨준다. 내 남편이 남겨준 풍성한 유물로 인하여 내가 지난 5년동안 나의 모교에 가서 의학역사를 강의 할 계기도 된 것이다. 남편의 장서중 희귀도서 약 3,000권과 그의 동상은 이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었고 나와 내 남편의 금메달도 모교의 역사관에 전시되어있다. 나는 대학 졸업시에 서울대 총장상을 받았고 내 남편은 2015년에 남편이 작고하기 직 전에 미국 치과학회로부터 전생애 이룬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 을 수여받았다. 남편이 작고하신지 올해 5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나는 그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은 더 걸려야 대강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나는 내가 문헌 산소와 나의 남골함, 그리고 유언장까지 마련했으니 이제는 내 생을 잘 마감하고 죽는 일만 남아 있는 셈이다.

자녀 70여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기쁨도 슬픔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것을 보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 경이 인생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던 모양이다. 내돈 \$50을 들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가난한 23세의 한국 소녀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실은 인생열차도 머잖아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또 우연한 기회에 내가 다니는 미국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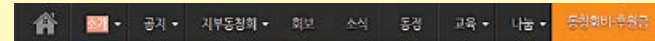
회 (Park Street Church)에서 우리 교회의 200년 역사를 기념하는 Bicentennial quilt를 제작할 기회가 있었다. 남편이 은퇴한 후에는 나도 일찍이 은퇴하여 우리 교회에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를 가르치고 있을때였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로써 부활절에는 약 3,000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인만도 1500명이나 되는 꽤 큰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uilt를 제작하는데 솔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quilt의 도안이 2년이 넘도록 목사님 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내가 이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의 학생중 일본인 11명, 중국인 교수한명, 그리고 또 한명의 한국인 학생들과 더불어 10주간에 걸쳐 제작한 Park Street Church Bicentennial Quilt는 지금 우리 교회 Welcome Center 에 전시되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200년 역사를 과시하고 있다. 이 quilt는 앞으로 적어도 90년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자녀 70여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기쁨도 슬픔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것을 보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 경이 인생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던 모양이다. 내돈 \$50을 들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가난한 23세의 한국 소녀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실은 인생열차도 머잖아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다.

동창회비 후원금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u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문헌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법대 58)

/ 단상 /

흰머리인생

비행기타고 미국에 발을 디딘지 어언 40여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내가 보아도 어이쿠! 흉안의 미소년을 자타가 공인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았는데 흰머리는 무슨 조화인지!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일진대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바뀌게 되었으니 이 또한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라. 이토록 수많은 머리털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색깔이 변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더라가 없을 것 같다.

40 여년 전 유학생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와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복가주 소재 은행원으로 미국 사회를 첫 출발하였다. 미국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복가주의 미국직장에서 온종일 오직 미국인만 상대로 살다 보니 내 동포가 많이 사는 남가주로부터의 노스텔자, 손수건의 향수와 동경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남가주 쪽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대책없이 사표를 던졌다. 가족을 이끌고 남으로, 남으로 포장마차 아닌 마차를 몰았다.

여러 친구로부터 복가주 친분이 남가주로 왔으니 식사 또는 술 한잔하자고 전화통에 붙이 붙였다. 모두 후일로 미루고 동분 서주, 직장을 구하다 보니 드디어 쥐꼬리 월급쟁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인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미국 직장일진대 포장마차 타고 온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두드러면 문이 열린다지만 두드릴 문이 있어야 두드릴 게 아닌가. 한두 번 미국직장을 옮겨 옮겨 겨자 먹기 직장생활도 수년이 흐르는 물과

/ 문화 읽기 /

블루스와 판소리



이명숙(음대 52)

미국의 대표적 음악 재스 중 블루스를 듣고 있으면 틀림 없이 한국의 민속악 판소리를 연상하게 하며 블루스와 판소리의 공통점을 찾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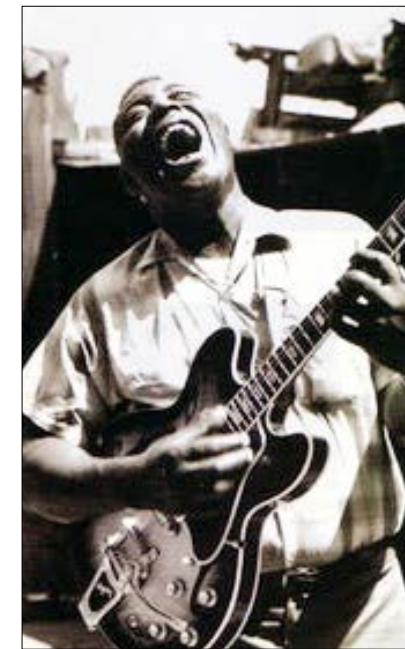
블루스는 흑인들이 고향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땅에 끌려와 인종차별과 학대를 받으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고독과 통탄의 돌파구로 아득히 먼 출생지 고향에서 듣던 음울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다 블루스는 처절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으며 그들의 한과 설움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다.

19세기말 흑인 노예들은 전도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에서 성가와 영가를 부르게 되었고 세속적인 블루스는 흑인 대중음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블루스를 부르면서 그들은 처량한 운명에 좌절되기보다는 고통의 부담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느낀 것이다. 그리하여 블루스는 감성적인 감정의 토로뿐 아니라 반항적 활

력을 표현하는 강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선율에는 반 음계적 억양이나 박자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표현법은 서양악기를 다룰 때에 일정한 격식을 따라야 하는 서구식 음악과는 상반되는 자유, 즉흥적인 연주를 통하여 재스 발생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블루스 창법은 횡격막 신축에서 오는 복부 호흡 발생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호흡발성 더구나 "뱃속으로 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온화하고도 웅건하게 노래하는 우리 국악 "우조"의 동편제와 애원과 감상을 지닌 "계면조"의 서편제 창법을 합친 우리 고유의 판소리 발생과 흡사하며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선회하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표현법도 비슷하다. 설화식의 판소리를 부르는 가수가 여러 장단에 변화를 주며 가수 나름대로의 재능껏 음색을 바꿔가며 극적 효과를 위하여 특유



창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블루스 가수가 여러 장단에 변화를 주고 가수 나름대로의 음색을 바꿔가며 극적 효과를 위하여 특유창법을 사용하는 것이 같다.

블루스 가수가 자기 특성의 발생법과 즉흥적 능력을 발휘하여 불규칙하고 보통 첫째, 셋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는 서양음악 연주와는 달리 둘째, 넷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며 노래하는 선율의 흐름은 특유하며 청중을 매혹시킨다.

블루스 창법에서 한 구절 끝음의 억양을 떨릿트 흔드는 특징은 판소리에서 음을 직선

호사다마, 승승장구만은 없는 법, 한인사회의 의식구조를 나 자신은 이해하나 미국인으로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미국인 상사와 의견충돌이 간간히 발생했으며 나의 중요했던 검은 머리털 색깔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견잡을 수 없는 머리털의 거센 데모를 진압할 길이 없을까? 공수부대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공수부대는커녕 경호원도 없는 주제에 완전 무방비였다. 그러던 중 손수 교포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에서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집요한 부락과 교포상대 위주로 일할 수 있다는 본래의 남가주행 목적에도 맞아 승낙하였다. 새 직장의 업무파악을 하고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자 6개월 만에 은행이 문을 닫게 되어 이번에는 타의에 의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였다.

아 이 무슨 월급쟁이의 비애였던가! 머리털의 데모는 더욱 기세를 올렸고 기숙사 사감선생의 눈총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또다시 이번에는 크고 안전한 미국직장을 찾아 옛날과는 달리 검은 머리털의 소유자 아닌 흰머리로 변신한 모습으로 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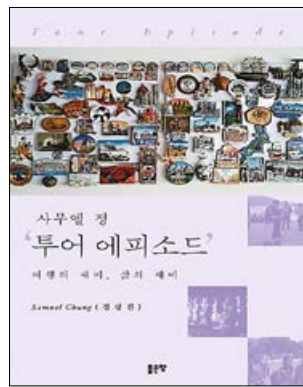
그러나 부모가 주신 원래의 검은 머리털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공수부대 부재 속에 데모는 오늘도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1.지역	2.전체동문수/ 참여 동문수	3.참여동문 평균연령 (학번)	4.젊은동문 (50세 이하) 참여율	5.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늘었다면 구체적으로 젊은층 영입을 위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6.올 한해 Covid-19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문들간의 소통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7.화상회의를 통한 만남이 늘었던 한해다. 화상회의에 대한 동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남가주 <회장 민일기>	2,000여명/ 2-300명	69학번 (70세)	5% 미만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위원회"로 소그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지만 Covid-19으로 모든 동창회 활동이 중단 됨에 따라 내년으로 넘겨지게 되었음.	각 단과 대학은 주로 단톡방을 주로 이용했고 총동창회는 이메일을 통한 공고 및 임원 및 단과대 동창회장 및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이용. 또 두 한인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중요 공지사항을 알리는데 주력.	ZOOM을 통한 세미나와 펠로십시 간에 처음에는 많은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했지만 횡수가 거듭함에 따라 ZOOM 피로현상이 나타난것은 어쩔수 없었다고 할수 있다.
 뉴욕 <회장 조상근>	1,200 /200	65학번	1% 미만	젊은 동문들과의 모임 개최 추진. 식사초대, 연말행사 등을 통해 장학금 지급하며 노력해 음.	On-Line (ZOOM) 을 통한 미팅. 회보(골든 트립 회보) 제작을 통한 동문간의 소통. 매달 초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미주동창회보를 통하여 활발한 소식교환이 가능했다.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워싱턴DC <회장 박상근>	약 700명 / 약 200 명	78학번(61세)	226명 (89학번 이후)	LinkedIn의 Sales Navigator 라는 Tool로 동문정보 확보, monthly e-뉴스레터, 단톡방, Facebook, MailChimp 등을 통해 소통. 무료행사, 무료회비로 참여도 높이며 노력. 임원진도 모두 50세 이하로 구성.	Zoom을 통한 모임 확대, 이사회, 학술/예술 세미나, 해피아워/게임 나이트 등의 행사를 Zoom으로 개최, 소그룹으로 대면 모임이 가능한 경우, 코비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위생의 필수 사항을 준수하며 개최.	마로니에 동문들(1975학번 이전)의 Zoom스킬이 좋다. Zoom이 생소한 신입 동문들(남녀노소 불문)께 줌 연습 미팅을 마련하여 mute/unmute, video, share screen, chat기능 사용, gallery view/speaker view 전환 등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시카고 <회장 장윤일>	약 450명 / 약 200 명	65학번	약 20%	관악 클럽이 매년 성장하며 활성화되고 있음. 작년과 올해 초 모임 때마다 30 대의 젊은 신입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관악클럽은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만남이 줄어들었지만 이사회는 회의 자료를 화상으로 전하고 투표용지도 on-line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두번의 이사회(재택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제3차 이사회를 12월 중에 가질 계획이다.	독서클럽 모임을 화상회의로 두번에 걸쳐 성공적으로 모였고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던 골든 클럽이 화상회의로 모였습니다. 참석율은 좀 줄어들었지만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들이 있었다.
 뉴잉글랜드 <회장 김정선>	250 / 40-50여명	10%	20명 이내	젊은 동창들에게는 동창회보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연말 파티에 가족 참여 장려, 회비 지원, 베이비시터 서빙서비스 등 재미과학기술자 협회, 교수 동문, 경영인들을 통해 젊은 분들을 수순로, network 장려.	지난 6월부터 모든 회의를 비대면 Zoom회의로 대체. 특별히 7월부터 시작된 New England Forum은 현재까지 6번에 걸쳐 진행. 11월에 2번째 정, 12월은 연말파티, 1월에는 2번의 포럼이 기획. 지난 9월 작고하신 동문의 추모회도 Zoom으로 진행 되었다.	Zoom을 통한 화상으로라도 서로 보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총회도 많은 동문이 참여,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이번 12월의 연말파티도 Zoom & YouTube Hybrid로 진행 예정.
 조지아 <회장 이영진>	약 200명 / 약 60-70명	65학번	10명 이하	지난해 80-90 학번을 위한 모임을 60-70에서 3회 가졌다. 부회장을 60학번에서 3분 확정 영입하였다.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이메일을 통한 동창회보를 배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 Google을 이용한 주소록 확보와 사진공유, 이메일 배포 할수 있는 system 구축을 하였다.	화상회의는 주로 임원들이 활용, 큰 어려움은 없는것 같다.
 필라델피아 <회장 지흥민>	120 / 60명	75세	20명 이내	젊은 동문의 참여가 지난 몇년간 정체 상태.	Covid-19으로 새 임원진 구성 및 2차에 걸친 임원회의를 갖고 금년 12월 행사는 2021년 4-5월에 갖기로 결정. 반면에 불실된 지부기 및 조기제작완료.	화상회의는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실시 못했음.
 워싱턴 주 <회장 이명자>	약 100명 / 50명	약 60세/ 75학번	90년도 이후 학번의 약 30명 등록/ 모임참여율은 10명 정도.	젊은 동문들의 모임을 따로 총무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교제함.	부분적 화상모임이 현임원들과 전화장들을 중심으로 모였고 같은 취미를 갖은 동문들간 외부 활동 진행, 회장이 이메일로 동문소식전달. 매달 씨니어 포럼이 줌 모임으로 지속.	연로하신 동문들에게는 화상 회의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달 뒤로는 참석하시는 분들의 사용이 수월해졌고 참여도도 늘었다.
 미네소타 <회장 송세진>	130명 / 65명	평균 63세 (1953 학번~ 1993 학번) 평균 34세 (1999 학번~ 2013 학번)	"46.2% (= 30/65)"	Zoom을 통한 학술 세미나가 동문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 증가. 재학 중인 동문들에게 학생 간사 동문을 중심으로 모임을 권장한 것도 도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집행부 모임과 학술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고 E-mail communication 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과 학술 세미나에 대한 공지를 하였으며, Facebook을 활용하여 미네소타 동문 소식을 공유.	기존 동문층부터 젊은 동문들까지, 모든 동문의 반응이 다 좋았다. 최초 접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니중에는 모두 전문가들처럼 잘 참지를 하였으며, Facebook을 활용하여 직접 환영하지 못해 아쉬웠다.
 커네티컷 <회장 유시영>	35명 / 16명	74학번	12명 (1980 이후)	사역으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 동창회의 선물을 준비해가 나누어 주면, 그 교회의 동문이 모르던 동문들을 소개해준다. 계속 follow-up 또는 email로 연락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참가 동문이 연로해서 covid 이전에도 눈이나 비로 인해 취소된 일이 있었고, 올해는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으므로, email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다행이다.	지역 동창들이 화상회의에 참여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메일을 안 읽는 분도 많다.

8.동창회를 운영하며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을 말한다면	9.Covid-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창회로서 보람된 일이 있다면	10.Covid-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실행하고자 하는 동창회 계획은	11.회보에 다루고 싶은 동창회 이슈가 있다면	12.회장으로서는 남은회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은	13.미주동창회에 바라는 점은
2월1일 총회및 회장 이취임식을 한후 년초에 계획했던 행사계획이 전부 취소되는 상황이 되고 동문들이 제대로 모임수 조차 없었던 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나마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룬 세미나를 매달 한번씩 하고 동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강사들과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 그나마 보람이 있었다.	아마도 내 임기중에는 Covid-19가 끝날것 같지 않으니 다음 회장에게 동창회 계획은 넘겨야 할것 같다.	재정계획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가지 다른 면에서 제 2의 인생 설계 등과 성공하신 분들의 체험담등을 실으면 좋겠다.	남가주 총동창회 명부 업데이트 및 개정.	미국의 각 지부 동창회의 구성점이 되고 본국의 총동창회와의 가교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란다.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 이사회, 연말모임, 골프행사 등 Events를 진행하기에 어려웠다. 그런 중 장학기금 모금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미주동창회에서 On-Line (ZOOM, Youtube) Meeting 을 진행하여 그나마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었다.	동문간에 자주 만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갖겠다.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리더를 선출하고, 젊은 동문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올리면 좋겠다.	훌륭한 차기 회장이 선출되어서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2020년 참여도가 부족하여 새해에는 분발하도록 하겠다.
동창회에서 준비해왔던 여러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에서 온 동문들이 꽤 많은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마음이 아프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마스크 드라이빙에서 생각외로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가 있어서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공로패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지역의 동문의 수가 증가도 기억할 만한 일이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다른 인근 지부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동문들과의 만남을 추천하고 싶다.	매달 지부 하나씩을 하이라이트 해서 맘껏 지부 자랑 (?)을 하는 색다른 행사를 자주 봤으면 좋겠다. 한 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옮긴 동문들의 정착기도 좋을것 같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웃을 실제로 돕는 행사를 실행하거나 이에 참여하고 또한 동포사회나 이웃의 중요한 opinion leader가 되었으면 한다.	혹시 미주동창회의 웹사이트에 지부 웹사이트를 호스팅 등 웹사이트 전반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얼굴을 마주보며 친목을 할수 있었던것이 아쉬웠고 또한 장학금 수여식을 갖지 못해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장학금을 전달하지 못한것도 아쉬웠다.	많은 행사들이 취소 되었지만 장학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35명의 훌륭한 응모자들이 신청하여 장학생 선발위원들의 수고로 13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였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일년 행사 계획을 의논 하는일이 최우선인것 같다.	미주 동창회보가 미주에 퍼져있는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몽칠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회장 임기가 끝나기전에 미주동창회의 차차기 회장 후보를 꼭 시카고에서 추천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차세대 젊은 동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창회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임원들이 야외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한번 나누었고, 소수의 산우회원들도 최근에 거리 두기를 유지 하면서 산행을 다녀왔다.	선종한 이재신 동문(공대 57)의 부인 김흥혜 여사와 따님 세 분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기념장학 기금을 쾌척, 현재 진행되고 있던 장학기금 10만 달러 목표를 앞당겨 주었다.	모두 한번 같이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밥을 같이 먹자는 의견이다.	아쉬운 것은 미주동창회에서 추진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어필하는 주제가 부족하다. 훌륭한 후배들의 이야기를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	Zoom /YouTube로 위촉되지 않은 동창회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SNUAAA-NE website의 구축과 운영, Cloud-based 동창회 master database 구축 등 내실을 기하려 한다.	지역 동창회의 사업 하나를 미주동창회에서 지원하고, 같이 공동주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모든 대면 활동이 중지되어 교류가 없었다. 보통 야외회 2회, 골프대회, 총회, 송년회 등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하였다.	여전히 연결의 최소점을 유지하며 교류하고 있다는 점.	정상 교류의 회복	미주 동창 현황 및 세대변화에 대한 대처	동문 교류를 위한 System 구축과 update.	동창회보 오프라인 배포의 재고를 요청한다. 비용배포의 효율을 고려할때 오프라인 배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점.	제29차 평의회에 참석과 지부분담금 하향 조정을 받은일.	만남의 축제겸 총회를 성대히 갖고자 한다. 또한 주소록을 업데이트하여 회원간의 소통이 도움이 되도록 준비중이다.	각 지부간의 소식이 더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 공동의 애로사항 나눔 등.	_____	_____
동문들과의 친교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서 참여도와 만족도에서 아쉬웠다. 또 새로 등록한 동문들과의 교제가 부족했다.	부족한 중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동창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동창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이 보람이라 하겠다.	직접 만나서 인사할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제일 먼저다.	이슈는 현재 모두 다양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대믹 동안 지역 사회의 안정과 회복에 많은 역할을 다하면서 동문들의 참여를 향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미주에 흩어진 동창들에게 한국과 모교 및 동문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동창들의 업적과 글을 기재한다.
학위를 마치거나 다른 주제 직장을 갖게 되어 떠나게 된 동문들을 제대로 환송하지 못하고 새로 미네소타에서 활동하게 된 동문들을 직접 환영하지 못해 아쉬웠다.	기사를 모든 동문들과 공유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세미나 등으로 시간과 장소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모임이 활성화되어, 격정했던 것보다, 동문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 기뻐다.	모든 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미네소타에서는 이 야외회가 연말 총회 다음으로 성대한 행사이다. 또한 체육대회, 공연, 학술회 등의 모임을 기대한다.	만나고 싶은, 찾고 싶은 동문들을 소개 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한다. 다른 주제 계신 동문과의 연대를 활성화 할수 있는 코너도 있으면 한다.	차재호 차기회장, 용정식 차기 총무의 인선으로 마음이 무척 든든하다. 이 두분은 중요한 리더로서 우리 지부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개인적으로, 동창회보는 한달내내 식탁에 두고 반복하여 읽는 것이 제 생활 습관입니다. 회보에 실린 글들의 가치가 아주 높은것 같다.
젊은 동창들은 동창회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이 다 함께하는 계획이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회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만나지는 못해도 그 연대는 변함이 없다.	당연히 참가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모임을 가지려 한다. 최소한 2분은 같이 식사를 할 계획이다.	_____	다음회장을 50대에 넘겨줌으로 새로운 젊음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_____

/ 추천 책 /

사무엘 정 - '투어 에피소드'



정상진(상대 59)

정상진 동문은 1939년 경북 대구에서 출생하여 1963년 서울대 상과대 졸업 후 무역상사에 근무하며 업무 차 빈번한 해외여행을 했다. 1980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으며, 2000년 은퇴 후 주로 여행을 하고 있다. 『사무엘 정 '투어 에피소드』는 저자가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한미일요뉴스)에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재했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세계 곳곳,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간다. 중국, 네팔, 알래스카, 인도, 독일, 에콰도르, 프랑스 등 대륙 횡단도 주저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그 순간, 그곳의 기억을 담아 돌아온다. 그리고 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그날의 기억'은 주관적이지만 도리어 생생하다. 글여기저기에서 위트가 흘러넘친다. 그는 여행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감흥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고, 방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곳의 정보를 독자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에세이는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애 받지 않는 글이다. 그만큼 서술의 폭이 넓고, 자유로운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대부분의 여행 에세이는 어떤 틀에 강박적으로 매어 있는 듯하다. 비슷비슷한 여행지, 크게 다를 것 없는 묘사들. 그런 면에서 정상진 저자의 《사무엘 정 '투어 에피소드'》는 아주 인간적이다. 발문에 배상환 시인이 쓴 것처럼 "자칫 자기만족, 자기 자랑으로 흐르기 쉬운 여행 글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위트는 여행의 특별함을 나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서 발생한다. 일상과 여행의 간극은 낯선 감정을 유발한다.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더 낯선 어떤 것. 이 글의 재미는 바로 그런 데서 온다. 판에 박힌 여행에 질렸던 독자라면 읽어야 할 것이다.

<SAMUELKJUNG@gmail.com>

/ 세계여행 /

네팔에서 진도 7.8 지진 체험①

- 정상진(상대 59)



2015년 4월25일은 네팔국민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도 잊을수 없는날이다. 그 해 4월, 15일간 인도 관광여행을 마치고 후속여행(post trip)으로 4박 5일 네팔 관광을 위하여 인도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를 떠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도착 2일째 진도 7.8의 강진을 만났다. 도시 전체가 무질서 속에서 땅은 수시로 흔들리고 전화는 불통에, 전기, 수도물은 끊긴 상태에서 때마다 끔찍한 정을 해야 했다. 이런 모든 상황보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진지역을 벗어나 일정을 잡을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일행(우리부부와 고등학교 여교사) 3명은 극히 운 좋게도 지진 3일째날 네팔을 떠나 인도 '델리'를 경유 귀국할수 있었다.

농촌마을과 풍년 기원 축제
지진 당일 오전, 먼 옛날부터 불교 석가모니와 인연이 있다는 농촌마을을 들렀다. 마을 공터에는 오리들이 무리지어 꺾꺾 거린다. 가까이에 개울도 연못도 보이지 않는데 웬 오리인가? 몇마리는 허수구시 궁창에서 푸드덕 거린다. 전해오는 전설은 중병으로 고생하던 석가모니가 이 마을에 와서 수탉의 도움으로 병을 치유하고 설법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 인연으로 이 마을에서는 닭을 사육도 않고 잡아 먹지도 않는다. 대신 오리를 키운다. 마을중심 광장에는 4면이 불상으로 조각된 석불로 노천제단이 마련되어있다.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합장을 드린다. 주민거주지역으로 들어섰다. 길 양편으로 4층건물이 줄지어 서있다. 가난한 농촌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빌딩이다. 안내인의 설명은 3백여년전 에는 번성한 농업마을이었고 건물도 2-3백년이 됐는데 벽돌로 골조외벽을 형성하고 문 창틀과 지붕은 목재를 사용했다. 목재의 외면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현재는 다소 조잡해 보이고 마을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않으나 초기에는 꽤 화려한 건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건물이 특이한것은 출입구 7-8개가 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출입문이 나 있다. 각 세대는 각자 출입문을 갖고 밑층에서 최상층까지 수직으로 각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시각으로는 건물이 불안해 보인다. 너무 낡은 탓인지 벽이 기울어진곳도 보이고 창틀도 균형을 벗어난곳도 많다.

거대한불탑을 보기위하여 다음행선지로 이동중, 온마을 주민들이 풍년기원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좋은 구경거리였다. 크기가 중형 트럭만한 바퀴가 달린 이동식 제단은 짐으로 엮은후 외부는 각종 색깔의 천과 비닐로 감쌌고 제

단 중앙에 '비의 신(Rain of God)' 을 모셨다. 옆과 뒷면에도 다른 형상의 신들이 보인다. 그 중에는 부처님의 형상도 있다. 필자도 주민들을 따라서 10루피(10센트) 촛불을 사서 제단앞에 두고 머리숙여 마을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 제사는 기우제는 아니고 비의 신에게 적절할시기에 적당량의 강우를 기원하는 매년 이맘때에 드리는 '풍년기원축제' 라고 했다.

한 마을을 지날때 크게 금이간 벽돌집들이 보여, 갑자기 1930년대 네팔 대지진 생각이 떠올라 안내인에게 '카트만두와 이

부근이 지진대인데 왜 벽돌로 집을 짓는가?라고 문의 하니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왕궁과 사찰은 물론이고 서민들 까지 토 벽돌집에서 산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실제로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지진!
마을입구에서 사찰 입성권을 구입한 후 언덕길을 내려오는 중, 갑자기 안내인이 내 팔을 붙들며 "어! 어!" 소리를 지른다. 나도 순간 땅이 몹시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우리일행 3명은 부둥켜 안은 자세로 앞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나무위의 모든 날 짐승들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 올랐고 마을 앞쪽의 집 서너 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흙먼지를 일으켰다. 불과 몇초 사이에 흙먼지로 마을 전체가 보이지않는다. 강한 진동이 지나간후 안내인이 "이왕 이곳까지 왔으니 10 분거리에 있는 사찰을 보자" 며 "지금 진동이 심하긴 하지만 네팔에서는 간혹 있는 일" 이라고 했다. 그를 따라 얼마를 걷는데 앞에서 주민 한명이 오며, 조금전 진동으로 사찰의 상당부분이 무너져 내려 경내 입장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서야 새삼 진동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사찰 관광은 포기 하고 다음 행선지인 '히피족의 광장'이라 불리는 왕궁 광장(Dubar Square)으로 가기 위해 우리 승용차를 호출하나 불통이다. 수 분 후에 어렵게 찾아 만난 차를 타고 행선지로 향하는 넓은 도로 에는 많은 주민들이 서성이고 있다. 계속되는 진동으로 집안이 위험하여 집 밖으로 나와 있는것이다. 안내인의 선포이 울렸다. 여행사 본부의 지시다. "지진 상황이 심각하고 모든 유적지가 폐쇄 되었으니 관광을 중지 하고 속히 호텔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였다.

<다음 회에 계속>

/ 추천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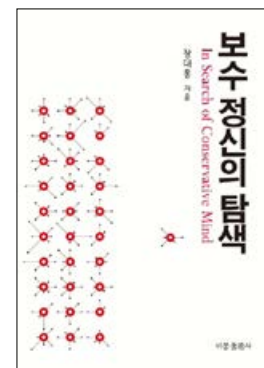
장대홍(공대 65)

보수 정신의 탐색

In Search of Conservative Mind

이 책은 진정한 보수주의 정신의 근원과 발전경로를 재조명하고, 리버럴좌파의 보수우파 매도 운동의 오류와 그들 주장의 무모함을 역사적, 현실적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번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보수주의 운동이 득세하는 추세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는 보수개혁론도 보수주의 철학에 대한 성찰이나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며, 리버럴좌파 정책을 흉내내는 데 그치고 있기에 실패하기 쉽다. 이 현상은 특히 한국에서 정치철학적 보수주의의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보수정치세력은 없다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오늘날 보수주의 정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신좌파 이념의 대두와 신중 전체주의 국가 체제의 부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이념적 영역을 확대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연합한 반보수주의 운동이며, 후자는 전체주의 중국 공산 독재 체제와 무슬림 근본주의 체제로 대표된다. 신좌파운동은 전통적 사회주의 계급투쟁론에 포스트모더니즘, 반인종차별론, 페미니즘.



환경주의의 가세하고, 글로 벌리즘과 무정부적, 무도덕적 자유주의 성향이 연합한 반보수주의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주축으로 하는 전체주의는 자유보수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정치적 위협이다. 시민적 자유와 주권의 회복은 보수우파가 진정한 보수 정신을 복원해서 이들과 맞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대홍 동문은 서울대 졸업 뒤 경영대학원으로 전공을 바꾼 뒤 미국 최고 비즈니스 스쿨인 유엔 와튼스쿨에서 파이낸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을 거쳐 한림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dtjaang13@gmail.com>

/ 신간 소개 /



김기훈(상대 52)

즐거운 인생, 보람있는 삶



김기훈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 명예교수가 에세이집 '즐거운 인생, 보람 있는 삶'을 출간했다. 책은 김 교수가 80여 년 동안 살아온 인생관이 담겨 있으며, 나이 들, 사랑과 우정, 어머니와 가족, 사회 문제 등등 다방면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 교수는 책에서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여생을 즐기고자 노력했던 소신을 담았다.

김 교수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피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인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던 김 교수는 요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메시지를 써서 책을 펴냈다. 본보에 게재된 글과 미동부 한인문인협회에서 발행하는 '뉴욕문학' 등에 실린 글 등을

수정, 보완했으며, 새로운 글을 더하여 80면을 총 4부로 나눠 담았다. 김 교수는 서울대 상과대를 졸업하고 1957년에 도미, 커네티컷 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7년부터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9년 퇴직 후 동 대학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센트럴 커네티컷주립대 아시아 미주학 연구원 원장(1990~1995년)과 동 대학 동북아시아문제 연구소 소장(1995~2009년)을 지냈다. 저서로는 '물, 불, 돌과 우리의 신앙', '인생은 비빔밥, 맛있게 드세요', '인생은 냉면, 맛있게 드세요'와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다. 책은 반디북스US와 글로벌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다.

<kimk@ccsu.edu>

/ 이달의 사진 / 눈내리는 마을 Alaska Fairbanks 근교 Snow Scene <나두섭(의대66)>



<조리개 f/11, 셔터스피드 1/100 초, ISO 800, 초점거리 30 mm>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합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d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곡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a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차재호 (농대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Jan-Dec
	차기회장		bryanphon@gmail.com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Fairway Asset

INNOVATION CONTINUES

업계 최고수준을 반영하는 정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용자전문회사입니다.
Fairway Asset은 모기지, 그 이상의 전문업체입니다.

남옥현 (경영대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301) 279-6969 (Office)
(301) 279-6968 (Fax)

info@facloan.com

www.facloan.com

글로벌 종합뷰티 업체 키스



Bring the Salon Home
KISS®

**“INNOVATIVE GLOVAL LEADER
 IN BEAUTY CARE”**



www.KISSusa.com

김광호(문리 62), 신규천(상대 73), 한규상(84), 김영훈(공대 93)